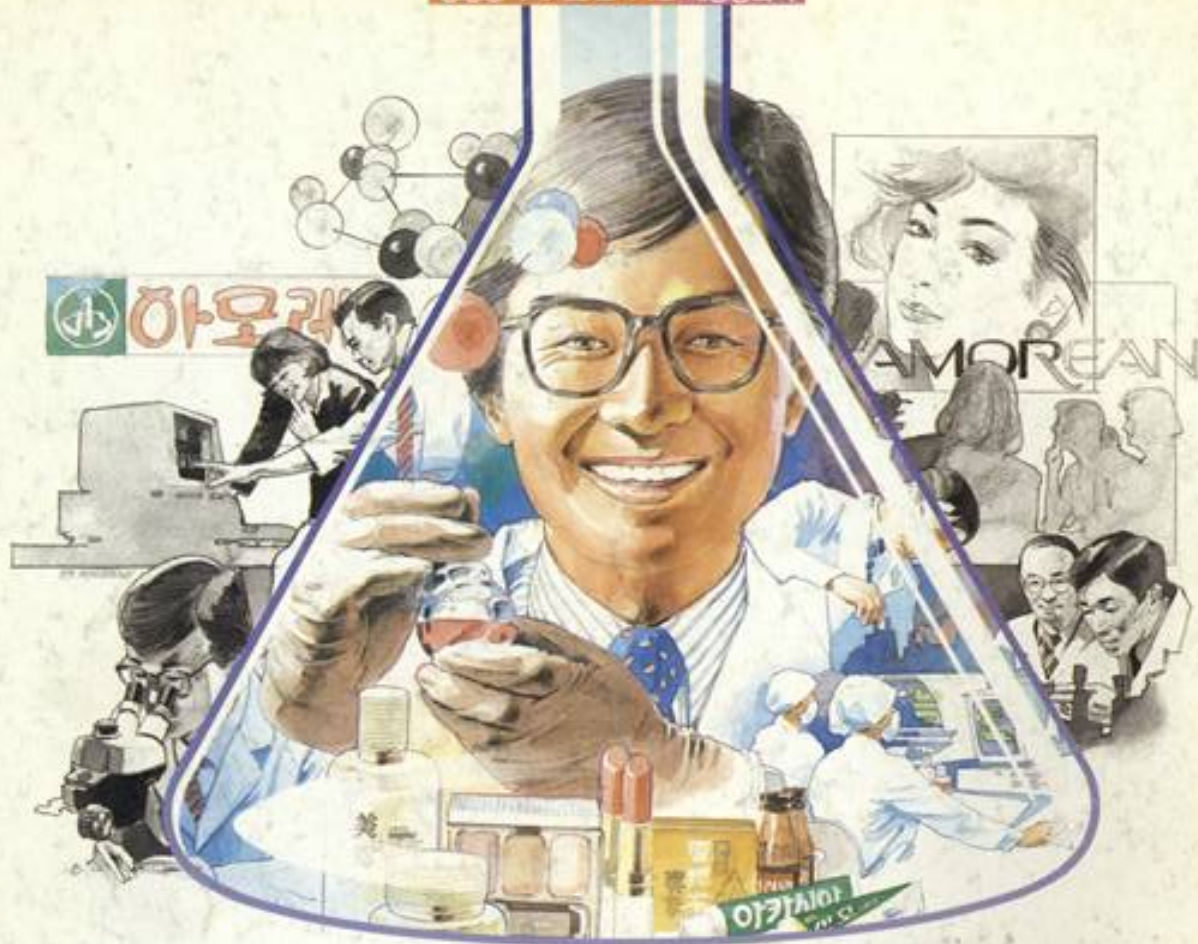




한 사람의 아름다움을 위해 244명의 연구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아름다움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태평양화학

인류의 아름다움, 사회의 아름다움을 위한 태평양화학의 노력은 90년대에도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첨단의 신소재와 생명공학을 응용한 싼도있는 피부과학으로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저자극성 화장품 뿐 아니라 각자 피부 특성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성분의 화장품,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가정생활용품,

식품 등에 이르기까지 수 많은 제품을 연구·개발해왔던 태평양화학 244명의 연구원들—지금 이 순간에도 보다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중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태평양화학이 새롭게 펼쳐갈 90년대를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의 꿈과 희망을 앞당겨 실현시킬 것입니다.

여성

월간여성 11월호(통권 280호) / 1990년 11월 10일
(매월 10일) 발행 / 1964년 5월 13일 등록(서)라-7
1965년 2월 25일 제3종 우편물(나)인가
(우편번호 140-013)

사단 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KOREAN NATIONAL COUNCIL OF WOMEN

특집

모집·채용에 있어서의 남녀불평등 철폐를 위한 토론회





•드론 카이저
스킨 컨디셔너 150ml 7,800원
•드론 카이저
아프터 셰이브 로션 150ml 7,800원
•드론 카이저
헤어크림 150ml 7,800원

생활의 분위기가 그남자를 말해준다-카이저



•드론 카이저 아프터 셰이브로션 후레어 150ml 7,800원 •드론 카이저 스킨 컨디셔너 후레어 150ml 7,800원
•드론 카이저 스프레이 스킨로션 150g 7,800원 •드론 카이저 헤어크림 150ml 7,800원
•드론 카이저 헤어로닉 150ml 7,800원

자신도 모르게 하나하나 바뀌어가는
생활의 분위기.
그것이 한 사람의 남자를 완성시켜 간다.
은은한 향취로 느끼는 완숙의 남성미—
남성화장품 드봉 카이저

DEBON
KAISER

월간 여성

1990년 11월호

통권280호

목 적 본회는 여성단체간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고 여성단체의 발전과 복지 사회를
이룩하는 일에 여성이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며 여성단체의 의견을 정부 및
사회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4 **女聲 / 김민제**
전통적 사회의 가치관과 여성의 문제의식

**특집/모집·채용에 있어서의
남녀불평등 철폐를 위한 토론회**

5 **모집·채용에 있어서의 남녀불평등
철폐를 위한 토론회**

7 **토론 / 김봉주**
여성채용문화와 고용정책 대안

10 **토론 / 장근화**
여성의 직업선택에 있어서 장애와 극복

15 **토론 / 이정희**
여대생 취업현실과 취업난의 극복방도

17 **토론 / 윤성자**
모집채용상 남녀차별 개선방향

20 **종합토론**

23 **이달의 여성계동향 / 홍은희**



26 **소녀자리포트 / 김은경**
우리 농산물 먹기 운동

28 **여성인로 초대석 ⑩**
식주선 선생님



30 **여성전문직 ③ / 서은경**
영양사

32 **메스컴에 비친 여성 / 메스컴모니터회**
드라마 대사의 신중성 요구됨

34 **여성정보 / 김철자**
모자보건

37 **협의회 소식**

38 **지방여성단체소식**
전라남도지역

40 **우리들의 광장**

45 **주소록**

전통적 사회의 가치관과 여성의 문제의식

김민제 (국제여성증언평한국본회 회장)

남성우월주의에 젖은 대개의 사람들이 무심코 던지는 말 가운데 하나는 "이 나라에서 교육받은 여성이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해 왔는가?"라고 시작된다. 이 물음엔 남성만이 이 사회를 주도해 왔다는 독선과 배운 여성의 무능력을 닮는 질책이 함께 들어있다. 이럴때 나는 이에 대한 대답으로 여성을 가정속에 가두어 두고 단순히 가족을 위한 순교자로 만들어 온 전통적 남성지배사회의 성역할 관념이 문제라고 지적하곤 한다.

대부분의 중년여성이 사회관념을 그대로 수용해 왔듯이 나 역시 얼마전 까지만해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중의 하나였다. 아마 이것은 항상 남자의 뒷전에 서서, 가정을 꾸릴 정도의 지적수준과 교양에 만족하며 결혼하기 위해서는 모든 학문적(전문적)성취를 포기해야 하는 불문율이 그렇게 만든 것이리라. 다행히도 진취적인 여성들에 의해 굳게 닫혔던 남성 전용의 부문과 직종이 조금씩 개방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도 벼은 두텁고 기회는 인색하기만 하다.

이런 모든 제도와 인습 이외에 우리 여성 스스로에게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자문해 본다.

결혼하면 기꺼이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 파묻혀 가족이기주의의 달콤한 안일에 빠져들지 않는지, 그래서 남편과 자식의 성취와 성장에 모든 것을



걸고 아파트 평수와 가구의 종류, 그리고 옷치장에 전념하는지도 모른다. 이는 중년이후 여성들이 가족이기주의의 허망한 꿈에서 깨어 날 무렵 격심한 혼란과 갈등을 겪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

직장여성의 경우는 어떨까.

직장에서는 가정을, 가정에서는 직장을 핑계로 권리만 주장하고 자신의 의무에는 소홀하지는 않는지? 이는 여성인력의 취업문을 더욱더 좁히는 요인의 하나가 되기도 한다.

또한 여성의 여성관에 잘못된 점도 있다. 직장에서 여성상관은 여성에게 오히려 가족하거나 여성은 다른 여성을 위해 일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지적도 있다. 여성은 보다 진취적이고 창의적이어야 남성사회에서 경쟁력을 갖고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주부의 역할과 여성의 자기성취는 병행할 수 없는 것인가?

여성의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사회활동의 욕구가 증가하는데 반하여 여성

취업의 기회는 극히 제한되어 있어 해마다 이맘 때가 되면 심각한 취업난을 겪게된다. 그나마 취업한 여성도 결혼과 직장생활 가운데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예가 허다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은 점점 자신감을 잃거나 좌절감에 빠져 버리고 만다. 여성이 사회적 공공역할을 수행하려 할 때 부딪치게 되는 문제의 근본요인은 뿌리깊은 성차별의 관습과 여성자신의 비사회적 특성에서 비롯된다.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사회교육을 통한 일관성있는 여성의 의식화와 함께 낡은 사회의 가치관을 바꾸려는 여성각자의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의식의 주체성이 확립될 때 남녀 모두에게 기회가 평등한 미래사회가 열릴 것이다. 특히 중년이후 자신의 무력감과 의존성에서 비롯된 우울증을 과감히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신과의 싸움을 벌여야 할 것이다. 안일과 나태에서 벗어나 여성이 여성자신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

무한한 가능성과 자기성취를 위해서는 여성의 잠재능력을 발휘시키고 공적인 분야에서도 그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집단적으로 공통의 이해를 갖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단체들이 연대해서 단합된 힘을 과시할 수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운동의 전개가 요구된다. ♣

특집

모집·채용에 있어서의 남녀불평등 철폐를 위한 토론회



모집·채용에 있어서의 남녀불평등 철폐를 위한 토론회

사회: 김영정 박사

사회: 요즘 모집·채용에서의 남녀불평등과 관련된 주제를 놓고 여러곳에서 다각도로, 참여대상도 달리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근래 일간지나 대중매체에서도 심도있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 특히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1987년에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령이 나오면서 문제점을 노출하여 공방끝에 개정되었습니다. 격론을 일으킨 내용은 벌금벌칙 규정이 약하다는 것과 임금에 대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적용이 빠져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 법의 제정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참고로 한 외국법이 일본의 '남녀고용촉진법'이었는데 이 법은 모든 법 내용이 선언적인 것일뿐 벌칙조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벌칙 조항을 규정하는 데도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을 위해서는 타협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 또한 정치적 현실과 무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법은 단계적으로 시행과정

상 착오를 겪으면서 현실화시키기 위해 변천, 개정을 거듭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영국의 선거법 개정은 19세기에 여러번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참정권이 점차로 확보되었고 20세기에 들어와서야 여성의 참정권이 인정되었습니다.

개정법률이 공포되어 이제 일년반을 경과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문제가 법 제정의 과정도 어렵지만 집행과정에서의 괴리 또한 큰 문제입니다. 즉, 법이 있고 현실이 따로 있습니다. 법이 현실과 일치되어야만 법치주의의 기반이 공고히 된다는 점에서 심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또 우리에게 계속 성차별의 관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관행은 법과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즉, 법이 있더라도 관행이 법을 삼키거나 무시해 버리는 현상을 체험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법이 준수되기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안에서의 여러 조항들-배치·임금·승진·승진과 관련된 교육·모성보전·정년과 퇴임 등에 대해 관행상 남녀의 차별이 없어진다는 대전제

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이 토론회에서는 이 중에서 모집·채용에 있어서의 남녀불평등 철폐를 위한 문제만을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이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의 불평등 문제는 여성이 과연 취업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관문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을 정착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남녀고용평등법 전체를 놓고 논의하자면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대안을 피상적으로 제시하기가 쉬운데 오늘은 매우 집약적이고 구체적으로 한정된 모집과 채용의 문제를 다룸으로 바람직한 논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외에도 가족법·모자보건법·모자복지법 등의 조항 하나하나의 집행에 대한 관심과 실상을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새로운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모임들이 계속 있기를 희망합니다.

금년은 대졸여성의 취업이 유난히 험겨울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것은 외적인 조건으로는 경제가 침체해 있어 남녀간의 대졸취업 입문이 어렵고 그 속에서의 여성은 몇종의 장애요소

를 갖게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즉, 전반적으로 기업은 여성의 채용을 기피하므로 치열한 경쟁을 또한 가중됩니다. 그 예로 경찰대학교를 예로 들어봅시다. 작년에 여성도 응시할 수 있게 됐는데 물론 이것은 취업이 아니라 취학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여성을 성적에 따라 뽑는 것이 아니라 시험 삼아 제한적으로 5명만 뽑겠다

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여학생들은 70: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들어오는 매우 독특한 여성들이었습니다. 이 좁은 문이 대변하듯 여성들의 취업은 하늘의 별따기식이라는 것입니다. 근자에 대기업 중에서는 공개채용으로 여성을 뽑고 있습니다. 대략 100명내외인데 이는 대기업의 일년 인력수급의 약 2%를 차지합니다. 지금 입법부

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의 수도 또한 2%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고서도 낙관할 수 없는 관행을 보고, 겪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자들은 이러한 현실의 요인분석과 이를 시정 극복하기 위한 대안들을 발표하겠습니다.



여성채용문화와 고용정책 대안

김농주 (대졸인력 취업문제연구협의회장)

남성에게 3~5%의 가산점을 주는 것은 국방의무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국가에 기여를 하였으므로 호봉제도에 반영시키면 되지 당락에 관계된 점수화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채용문화는 고용의 폭을 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중의 하나이다.

한국사회에 있어서 여대생의 위상은 국가의 발전전략에 있어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이다. 금년도에 약 5만 2천여명의 대졸여성과 누적인 4만여명의 미취업대졸여성의 9만 2천여명의 대졸여성 공급시장은 수요시장 2만 3천여의 일자리를 두고 전통을 겪고 있다. 다시 내년에 누적될 8만여명의 미발달적인 여대생 실업현황은 우리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총량적인 문제 못지않게 고용문화면 또한 많은 새로운 인식전환이 요구되

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불안정한 채용의 문화가 서서히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문제는 2만 3천여 일자리중에서도 소위 대졸대우를 해주는 직위가 매우 적다는 사실이 평생직장으로의 진입을 바라는 많은 전국 여성지식인들에게 당혹감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여성만의 문제라기 보다 이 나라 전체의 문제라는 시각으로 봐야한다. (1990년 50대 기업군에서 1,200여명이 여성/19,000여명이 남성구인에정임) "임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쯤 후면 영구직이 되겠다"는 낙관적인 조적에 대한 기대때문에 취업기회를 놓치고 일한 결과 자신에게 돌아오는 1

년 후의 상황은 직업을 잃은 환경이다"라는 어느 여대생의 실제모습에 접하면서 고용문화의 새로운 정립운동이 있어야 한다.

대졸여성채용문화에 있어서 이처럼 불완전한 고용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평생직업을 갖기를 원하는 여대생전체의 취업건강에도 나쁜 방향의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흔히 여대생채용에 있어서 주요한 문제는 여성 고용차별상황의 개선능력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남성에게 3~5%의 가산점을 주는 것은 국방의무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국가에 기여를 하였으므로 호봉제도에 반영시키면 되지 당락에 관계된 점수화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3 과목 시험인 경우는 9점~15점을 먼저 취득하게 되는 관계로 인하여 여대생의 취업문호를 원천적으로 막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1988. 4. 1부터 발효된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고용관행이다.

막스 베버는 직업(occupation)은 소명(calling)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능력에 따른 공정성이 무엇보다도 직업시장 진입에 기본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 있어서도 남성에게만 가산점조항은 개선되어야 한다. 여대생 채용직종을 한정하고 있는 인재채용방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일반사무, 전산, 경리, 홍보, 광고, C.W, 프로그래머, 구성 일반관리, 고객관리, 편집교육 등의 일정영역의 직종에만 대졸여성채용계획을 세우고, 설의 국제마켓팅, 구매, 설계, 엔지니어링, 연구, 기획, 매체관리 등 직업조직 내의 주요부문에서 고용흡수력이 큰 다수직종의 채용소요인력에는 여대생인력을 채용하지 않는 내용상의 고용성 차별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여성들은 오늘날 대학에서 전공한 분야대로 직업을 갖지 못하고 비전공분야로의 진출흐름은 더욱 더 가속화되어갈 전망이다.

고용의사를 결정하는 기업 조직에서 실제로 그 직종에 여대생을 채용해서 직무를 맡겨보지 않고서 객관적 자료없이 노동시장진출을 막고있는 것은 그들이 여성노동의 질적 평가를 과학적 근거없이 편견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반증이기도 하다. 그래서 오

늘날 공과대학의 식품공학을 전공한 여대생 인력이 외국은행에 원서를 제출하고, 이를 위해서 외국어전문교육기관 등을 다시 수료하고자 하는 취업과 전공과의 지나친 유리현상이 여성에게 더욱 직접적으로 큰 폭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입사후 사내인력이 전문과 교육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데 있어서 기본소양교육에는 남녀같은 비중으로 참여시키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기업조직에서 남성인력에게 해외연수 등에 있어서 우선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직업실무 노동의 질에 있어서 입사 2~3년 후는 많은 격차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에서, 직업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바로잡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찍이 Mee교수는 회사조직내 교육의 실제적 효과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는 바 ① 사내 의사소통의 개선에 기여하고 ② 조직원의 사기를 향상시키고 ③ 사원개인의 승진에 대한 자극을 주고 ④ 직무감독자의 부담을 교육내용의 충실화로 인하여 감소시키고 ⑤ 결근율과 노동이동율을 최대한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⑥ 제반 활동에 있어서 낭비와 불량품을 줄이는 근로환경을 만들고 ⑦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직접기여하게 된다고 한다.

여기서 사내교육이 얼마나 노동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를 알 수 있다.

대학졸업 후 공개경쟁시험을 거쳐 입사한 우리나라 모 대기업의 대졸여성 한 분을 그 회사를 방문하다가 만났더니 "선생님, 직장을 옮기고 싶습니다"라고 하길래 이유를 물었더니 "회사에서 남대졸과 동등한 수준의 일을

맡기지도 않고 부서내 주요회의에 참여할 기회에서 배제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분명히 저도 같이 참여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객관적 근거없이 여성인력의 노동능력평가절하 방향을 기업이 갖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직접 겪어보니 참기 힘듭니다. 바쁘고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고 일이 적고 단순하여 더욱 무력감을 느낍니다"라고 하면서 진직할 계획임을 얘기하였다.

이는 모기업이 대졸여성에게 채용은 물론 직업으로서 여성개인이 정착할 토양조성에 관한 현재의 열악한 환경의 단면을 드러내는 경우가 아닐 수 없다.

고용이라는 것은 기업가가 인력부자를 통하여 경제 상황을 향상시키고 이윤동기를 현실화시키는 하나의 기업정책이라고 한다면 그 기업은 이미 여성고용정책에 있어서 경제적 효용성을 사장시키고 추가 여성고용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우를 범하고 있다 하겠다.

"오늘날 대학을 졸업하는 여대생들의 노동의 질은 결코 남학생들에게 뒤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대하여 ① 직업의식 ② 기업조직에의 적응도 ③ 정해진 시간내의 일 처리 능력 ④ 언어능력 ⑤ 협조능력 ⑥ 장단기 계획능력 ⑦ 체력 ⑧ 힘들고 사소한 일을 참고 견디는 태도 ⑨ 기능 ⑩ 첨단지식의 수용력 ⑪ 미래예측력 ⑫ 수리, 기계조작, 통합력, 지도력, 시장에 대한 사야 ⑬ 신선한 아이디어 구상력 ⑭ 경쟁에 임하는 태도 ⑮ 정보처리 능력 등 15가지를 기준으로 볼 때 결코 남대졸에게 뒤지지 않고 오히려 앞서 있는 노동의 질적보유자가 많음에도 우



리 채용문화속에 자리잡고 있는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유교문화권의 깊은 근거없는 편견을 아직도 21C 기업문화를 선도해 갈 책임있는 기업에서 갖고 있다는 사실은 나라의 고용문화의 올바른 정립을 위하여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결혼차서제도가 폐지된지도 15년여가 되고 있는 은행이 아직도 남작사원은 행원으로 여대졸은 여행원으로 채용하여 남성보다 2호봉 낮게 여성에게 직책을 주고 일정기간 지난 다음에야 다시 행원이 될 시험을 치르게 하여 취업을 위한 시험을 두번씩 부과하고 있는 현실은 어디에 어떤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가.

같은 노동의 질이면 같은 분량, 같은 기업의 취업규칙 범위내의 계약관계이면 동일임금법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왜 다시 일정기간 지난 후에야 정식행원고시를 치루도록 여성취업의 장애요인을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날 대학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잘못된 사회진출구조를 밝히고 정책방

향을 얘기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고용은 기업만이 스스로 결정할 경영자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단선적 시각에 대하여 재검토 있기를 바란다.

이런 관행은 우리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14조)를 실제적으로 위축시키고, 남녀평등정신을 명기한 헌법 제10조 1항에도 실제로 위배된다고 보는데 바로 개선해 나갈 의향이 없는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여성대졸인력의 직업문호를 넓히기 위한 대안으로는 여성의 직업에 대한 인식변화노력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법적 사회제도적 정책이 나와야 한다. 남성에게도 같은 책임이 분담되어 있는 가정관리와 육아·직업의 삼원체제를 효율적으로 감당해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탁아시설에 대한 실제적인 투자가 있어야 한다. 만약 이 부문에 대한 투자가 있어서 자금이 부족하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정부기본예산에서 보조금을 기업에 지원해주는 방식으로라도 여성이 우수한 노동능력을 스스로 사장시키지 않도록 정

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지금의 직업문화를 보면 대부분 탁아를 여성개인의 비용으로 부담한 나머지 여러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비용을 들여서 이용하고 싶어도 너무 미비한 여건하에 있는 것이다.

능력을 사지않고 미모를 우선시하여 최종채용을 결정하는 하나의 흐름에 대하여 ① 기업의 고용의사·평가과정에서 사내의 여성인력이 참여할 수 있는 채용시스템의 새로운 편성 ② 직업조직에의 기여도로 볼 때 능력이 미모보다 더 경제적으로 장기적인 효용이 크지 않겠느냐 하는 관점의 새로운 정립운동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오늘날 대한항공, CPA항공, UNITED AIRLINE, CITI BANK, 계통사, 학교조직에서의 여성인력부서장 진출 흐름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사원개인의 창의를 의해 움직여지는 조직이야말로 강한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시각으로 객관적 제재에 의한 운영을 위해서는 섬세한 감각, 소비자의 구매동향 파악에 더욱 사실적 접근을 할 수 있는 대졸여성이 보다 필요한 세기가 21C가 아닌가 보여진다.

U.R. 협상시한을 불과 2개월여 밖에 안 둔 시점에서 내국인 기업의 세계경쟁력 고양을 위해서도 우수한 여대졸인력을 보다 폭넓은 직종에 남대졸과 하등의 차별상황없이 공개경쟁토록 하여 인력구성을 시도해 가는 기업은 보다 한 발 앞설 수 있으리라는 전망을 해본다. 아울러 대학을 졸업하는 여성인력 가운데서 고용을 할 수 있는 자기창업지망생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21C는 여가상당·자녀진로교육 상담전문회사, 광고제작에 있어서는 소비자행태 조사 및 분석회사, 마

캐팅 촉진가로서의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전자디자인 전문회사, 뷰티 아카데미 용역회사, 응용 S/W 개발회사, 광고음악 전문가 회사, 인쇄 편집대행사, 이벤트전문기회사, 식량과 반공해 관련회사, 해외통신·방송장비 수입회사, Convenience Store, 여성문화사업 전문회

사, 국제분쟁 조정회사, National Coordinator 전문가 회사 등의 제반 유망 여성창업이 쉬운 직종에 대한 국가산업 정책의 적극적 배려가 제7차 경제개발계획에 도입되어 한다고 본다. 적성과 관심, 의욕, 궁지, 목표 실재활동지적 능력에 대한 보완적 노력을 보다 더 기울여 가는 여대졸인

려사항을 살피기 위해서도 많은 직업 조직의 최고경영자들이 대학에 자주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방문하여 여대생을 이해하고 그들이 결코 남대생들과 차이가 있는 환경속에서 배우고 있지 않고 동등한 교육여건속에서 경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여성직업교육 운동이 있기를 바란다. ◆

특집 ● 모집·채용에 있어서의 남녀불평등 철폐를 위한 토론회/토론



여성의 직업선택에 있어서 장애와 극복

김근화 (본회 근로여성위원회 위원)

뿔아주지 않아도 넉넉히 살 수 있는 여성들의 실체를 보여줌으로써 필요한 사람은 찾을 수 밖에 없도록 하자. 우수한 고급인력이 어디에 사장되어 있는가 찾아 쓰지 않으면 누가 손해인가를 실감나게 해주어야 한다. 그에 대처하는 방안으로는 실력이다. 유망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들의 기준을 보면 학벌이나 성적이 아니라 자능과 직성을 고려하고 실질적인 직업수행 능력이다.

1. 직업의 의미

알베르 카뮈(A. Camus)는 인간이 일을 하지 않을 때 그의 생은 무의미하게 된다고 했다. 인간이 하는 선택 중에서 직업의 선택만큼은 자신의 뜻에 따라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출생이나 결혼은 운명적 선택이라면 가치관이나 친구의 선택은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선택이 된다. 그 중에서도 직업의 선택은 사회에 대한 개인 능력의 도전이며 생활유지의 수단으로써 평생의 가치를 좌우할 중요한 관건이 된다.

그러므로 직업의 의미는 경제적 의

미 이외에도 사회적인 유용성에 봉사한다는 의미를 지니며 인간가치의 평가나 지위의 객관적 판단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직업은 평생을 걸려 할만한 일이고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과제로서 진정한 일과의 만남은 보람있고 뜻있으며 즐거운 과업으로 삼아야 할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2. 직업의 선택 조건

직업을 선택할 때의 조건을 내적인 것과 외적인 면에서 찾아보자.

내적조건에서 첫째는 자신에 대한 냉정한 관찰이다. 나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딸로서 아내로서 엄마

로서가 아닌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다.

둘째는 장차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긴 안목으로 자신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다. 셋째, 나의 진정한 소질과 특징은 무엇인가? 네째, 나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다섯째, 내가 가장 흥미있어 하는 것,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섯째, 나는 어떤 일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어떤 일로 보람을 추구할 것인가? 등이다.

다음은 외적인 조건 즉 환경적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① 경제환경 - 생활수준의 향상, 산업

구조의 변화에 대처할 만한 경제적 조건이 고려되어야 한다.

② 사회환경에서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의해서 생활의 질을 높여려는 노동이 우선되는 사회라는 사실이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신세대 등장, 국제화 다원화 되는 사회의 일원이라는 생각으로 사회 환경에 적응할 조건을 찾아야 한다.

③ 기술환경 - 급속한 기술의 혁신과 정보의 물결, 신소재 신물질의 등장 등 첨단기술과 기능이 우선되는 사회에 대한 대처가 있어야 한다.

④ 교육환경(知的)의 고려 - (지능, 지식, 분위기) 학교·전공 등 직업의 선택에서는 배놓을 수 없는 고려요인이 된다.

불리한 여건일수록 공평한 재질을 나누어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능력이나 흥미 성격을 파악하고 건강, 환경, 전공, 장래전망, 직업 사회적 가치 등의 장기적인 조건에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3. 직업의 분류

어제의 유망직종이 오늘의 사양직이 되고 어제의 우수에리트만이 할 수 있던 일이 오늘은 그저 보통이면 할 수 있는 직업도 있다. 더구나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없을 정도로 세분화 되고 개발되어서 실로 직업의 세계는 어떤 것이라고 정의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 다만 불명확한 것은 그 나라의 경제수준이나 문화배경에 따라 직업의 숫자가 몇 백에서 몇 만에 이르기까지 큰 폭으로 나뉘어 있다는 사실이다.

ILO의 보고에 의하면 산업혁명당시 약 400종이던 직업이 1945년에는 10

,000종으로 증가하였고 '65년에는 50,000종이었으며 1974년에는 이십만종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아도 1956년에 불과 2,000종에 불과하였지만 1960년에는 산업화 계획에 힘입어 급속한 증가를 보였으며 1970년대에 간행된 한국표준 직업분류에 의하면 1,300여종이었고 1986년 노동부가 발행한 직업사전에는 만오천종의 직업이 수록되어 있다.

이와같이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산업의 고도화, 사회의 다양한 욕구분출에 의해서 직업의 개발과 세분화는 무서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앤로오(Anne Roe)라는 학자는 모든 직업을 인간지향적인 직업과 비인간적인 직업군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를 보면 인간 지향적인 직업분야에는 ① 서비스직 ② 비즈니스직 ③ 조직·단체직 ④ 일반문화직 ⑤ 예·체능직이 있다.

비인간적인 직업분야에서는 ① 산업기술직 ② 옥외활동직 ③ 과학직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직업의 분류는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다. 우리나라는 1974년 경제기획원에서 작성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하면 대략 9가지로 분류되는데 이들 직업군을 다시 1만 5000여종의 직업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① 전문직 ② 행정관리직 ③ 사무직 ④ 판매직 ⑤ 농·임·수산업 및 축산직 ⑥ 서비스직 ⑦ 생산직 ⑧ 교통, 체신직 ⑨ 노무직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가지 더 미국의 직업분류를 보면 현재 15개군으로 분류하고 다시 36,000~40,000개의 직업으로 나누고 있다.

① 농업경영과 자연자원직 ② 기업



과 사무직 ③ 소비와 가정교육직 ④ 건설직 ⑤ 환경통계직 ⑥ 예술과 인문과학직 ⑦ 건강교육직 ⑧ 후생 및 오락직 ⑨ 제조분야직 ⑩ 해양관리직 ⑪ 판매유통직 ⑫ 개인봉사직 ⑬ 공공행정직 ⑭ 교통기관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4. 직업선택의 장애와 극복

의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다같이 직업때문에 맺어지는 인연이다. 피고용자의 고용인이라는 관계에서 공존공생의 길을 가는 동반자라는 생각이 필요하다.

다음은 직업관의 변화다. 직업분류에서 보았듯이 직업의 세계는 변하고 있다. 또 20만종이나 되는 직업이 이 세상에서는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무슨 일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직업이 될 수 있고 자신있게 할 수 있는 일이 전문직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직업종사 형태의 변화에도 초연해야 한다. 앉아서 하는 일 나가서 하는 일의 구분이 아니라 어떤 곳 어떤 자세로도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직업이고 생산이다.

다음은 제도와 관행에서의 극복이

과제다. 고용평등법이 없을 때는 그것이라도 되면 장미가 필 줄 알았는데 아직도 문제가 많다. 그것은 제도때문 보다는 실행의 장애를 극복 못하는데 원인이 있는 것 같다.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과도적조치나, 배려가 필요하다(무거운 벌칙, 취업거부 등). 끝으로 조직적인 여성운동을 들 수 있다. 그 동안 해오던 여성의 인간화 운

동에서 이제는 여성의 경제화 운동을 주장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여성의 창업률이 조성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보아진다.

뿔아주지 않아도 넉넉히 살 수 있는 여성들의 실재를 보여줌으로써 필요한 사람은 찾을 수 밖에 없도록 하자.

우수한 고급인력이 어디에 사장되어 있는가 찾아 쓰지 않으면 누가 손해

인가를 실감나게 해주어야 한다. 그에 대처하는 방안으로는 실력이다. 유망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들의 기준을 보면 학벌이나 성적이 아니라 지능과 적성을 고려하고 실질적인 직업수행 능력이다.

그것은 미래의 유망직종이 요구하는 지능과 적성을 참고로 능력을 파악하기 때문에 소개해 본다.

표1] 직업과 지능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1983 <학습과 일의세계>)

구 분	평균지능지수
전문직	115
관리직	108
서기직	104
숙련직	99
반숙련직	97

다음 표는 적성을 고려하여 직업을 선택하게 하는 표다.

표2] 직업과 적성

직업적성	직업의 예시
인문계통의 전문적 직업	사회과학 연구가,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특허법률가, 공증인, 세무사 평론가, 논설위원, 뉴스 해설가, 방송기획인, 신문기사 심사위원 사법서사, 재판서기, 조정원, 사법 경찰관 신문·잡지 편집원, 라디오·TV편성원, 신문기자, 시나리오 작가, 번역가, 프로듀서
언어능력을 특히 필요로 하는 사무적 직업	전문적 기획사무원, 공정관리사무원, 공보담당자, 인사관리 사무원, 채용·훈련사무원, 노무관리사무원 일반계획사무원, 자재계획사무원, 운송계획사무원 인사조사계, 교육계사무원, 후생관계사무원, 카운슬러, 세일즈맨, 신용조사원, 조정인, 서비스계 사무원, 여객계(항공, 철도) 아나운서 문서계사무원, 접수계, 안내계, 역무계, 우편창구사무원
자연과학계통의 전문적 직업	자연과학 기술자, 자연과학 연구가, 의사 항공기 조종사, 항해사 전자계산기 기술자, 전자계산기 분해조작 기술자, 선박기관사, 항공기 기관사 시험공, 분석공 X선기사, 위생검사 기사, 물리요법사

직업적성	직업의 예시
수능력을 필요로 하는 일반 사무적 직업	전문적 경리사원, 회계감시계, 회계계, 통계자료기록분석사무원, 부동산평가계 일반경리사무원, 현금출납원, 통계조사계 조수, 전자계산기 조작원 일반사무원, 출하·수하계, 창고계, 검량원, 생산현장 사무원, 각종계산계, 무기계, 대부계, 예금계
기계적 사무직	속기사, 속기타이피스트, 무선통신사 국문타이피스트, 영문타이피스트, 텔레타이피스트, 카드분류기 조작원, 전화교환수 식자공, 재판공, 조판공
기계장치의 운전 및 공안직	자동차운전수(버스, 승용차, 트럭), 건설기계 운전수, 농업기계운수 직업군인, 경찰관, 소방관, 해양경찰관, 철도공안원, 운전기 인쇄공, 읍새인쇄공 자동차제어기계 조작원 합성공(화학약품, 비료, 화섬, 유자, 의약품 등), 석유 정제공, 가스정제공, 합성유 지원료 혼합공
일반적 판단과 주의력을 필요로 하는 직	보건원, 조산원, 간호원 비서, 여객전투, 항공기안내원 점원, 판매원 버스 안내원, 관광버스 안내원, 가정부 우편 배달부 수위, 경비원, 간수, 철도경비원, 건널목간수
응용미술직	상업디자이너, 잡지류 표지도안가, 카타로그 도해고안가, 광고기획가, 과학모형 제작가, 공업제품도안가, 공업디자이너, 카메라맨 상품전열가, 진열장 장치가, 복장디자이너, 무대장치가, 정원사 이용사, 미용사
설계, 제도 및 전기관계직	설계사(토목, 건축, 선박, 항공기계, 기관차, 자동차 등 수송기계, 각종 장치, 기계, 기구) 제도공(토목, 건축, 기계, 전기배선), 현도공(철구조물, 선박, 차륜, 판금, 목형, 건축) 발전공, 배전공, 변전공, 송전공, 동력선 가설공, 전기공, 전기공사인, 선박전기공사인, 배설공사시험공
제판 및 제화직	문선공, 사진제판공, 석판공, 읍새제판공, 평판인쇄공 제도공, 현도공
검사 및 선별직	검사공(전기기기, 기계조립, 음식료품, 제사, 방직) 검사공(목, 죽, 초류, 펄프, 지류, 요업, 토석) 선별공(과실, 곡물 등 생산품, 공업제품, 상품, 원재료, 회수자재)
조형 및 손기락 재치를 위주로 하는 직	전기통신가, 조립공, 수선공(전신기, 전화기, 텔레타이프 등), 라디오, TV 수리공, 전기기계조립공, 수리공(전동기, 정류기, 변압기 등), 전자기기 조립공, 수리공(전자계산기 등) 시계조립공, 시계수리, 조정공, 광학기계기구조립, 수리공, 렌즈조정공, 이화학기계 기구조립, 기구조립공, 화공, 인쇄화공, 포스터화공, 간판도장사 악기계조공(하모니카, 피리 등 소악기의 조립 및 제조), 모형제공(표본, 식품, 지리모형), 소도구제작공, 조화공, 양복봉제공, 양장봉제공

직업적성	직업의 예시
	전구·전공관 조립공, 트랜지스터 조립공 숙녀복·아동복 봉제공, 편물공, 제모공, 수제화공 형입공, 재단공, 압형공(피혁, 모양) 초차제품가공공, 석세공 귀금속, 옥석 세공공, 마네킹제작공 가구공, 전구공
조형 및 손재치를 위주로 하는 직	선반공, 보루반공 등 금속절삭작기계조작공 기계조립공, 기계부품조립공, 기계수리공, 기계조정공 항공기조립·정비공, 자동차수리공, 자동차정비공 판금공 선박목공, 교량목공, 조립목공, 목공 건축석공, 석공, 도로포장공, 석적공 조수(대리석 등 고급품의), 석공건설 난방 및 환기장치 조립공, 파이프 접속공 미장공
육체노동직	주형공, 조괴공, 용해공, 압연공, 주물공, 대장공, 프레스공, 용접공 자동차조립공, 자동차부분 조립공, 자동차차체조립공, 철도차량조립공, 선박도장공, 선용기계수리공 악기제조공(피아노, 대향관악기 등의 조립 및 제조) 역구내원, 화물 정리원 금속재단공, 금속절단공, 금속쇄공 필프공, 용지재단공 고무제품성형공 밧깅공 판초자공, 공관성형공, 시멘트제품제조공 벽돌공, 타일공, 블록공
감시직 및 육체노동직	입업종사자, 어업종사자 토사채취부, 광부, 갯도지주부 하급부, 운반부 가스공급인, 급수공 배터조립공, 라디오케이스조립공, 캐비닛 용접공, 라디오변압기조리공, 코일조립공, 스위치조립공 조사공, 정방공, 직포준비공, 연사공, 직포공, 메리야스편립공, 제망공, 표백공, 정면공 미성공, 단추공 등 봉제기 조작공 죽세공공 지합제조공, 지제품제조공, 제책공 요업원료공, 도지기소성공, 시멘트제조공 유제품제조공, 육제품제조공, 수산물가공공, 통조리식품공

직업적성	직업의 예시
	화학원로, 사입공, 유지공 가방제조공, 양·우산조립공, 맥기공, 도장공, 포장공

(자료: 직업훈련연구소 1986)

표에서 참고하였듯이 지능과 적성면에서도 과연 여성을 배제하고 국가의 발전이 가능하겠는가. 고도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미래의 직업군을 생각하면 적절한 인력이 어디 숨어있는가를 보물을 찾듯이 찾아 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여성들도 한단계 뛰어넘는 야망과 센스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능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안팎을 아우르는 대기업, 안시키는 일을 성취하기란 너무나 어렵다. 더구나 격려받지 못하는 분위기 속에서 소외되고 왜소해지는 메카니즘을 극복하기는 낙타

와 바늘구멍에 건줄만하다.

스스로 일을 만들고, 꾸미고 하는 창의적 감각이 필요하며 작지만 환영하는 곳에 들어가 일을 배우며 직업기술을 연마하겠다는 새로운 의지가 훨씬 바람직한 일이 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여성운동의 목표도 달라져야 한다. 운동은 여럿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다. 좋은 목적이라는 당위성 하나만으로 운동이 되기는 어렵다. 더구나 많은 변수, 즉 정치적인 것, 가족적인 것, 관행적인 것, 전통적인 것들은 모두 배제하고 어떻게 여성운동으

로 극복할 것인가. 한 예로 남편의 직장에서의 안팎을 아우르는 여성취업자를 비호할 사모님을 어디서 찾겠는가? 그래서 대안이 안보이는 여성운동보다는 실체가 보이는 여성경제운동으로써의 전환 방안을 주장하고자 한다.

즉, 여성들의 주식회사, 여성은행, 여성들의 무역, 여성인재발굴사업, 여성조직간의 연대, 국제조직과의 긴밀한 유대, 여성사업의 적극적 홍보, 여성사업자간의 보증사업, 여성신용거래사업, 여성전문직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제안하면서 글을 맺는다. ♣

특집 ● 모집·채용에 있어서의 남녀불평등 철폐를 위한 토론회/토론



여대생 취업 현실과 취업난의 극복방도

이정희 (서울시 여대생 협의회장)

여대생의 경우 취업을 자체가 낮을 뿐 아니라 여러가지 차별의 벽이 존재한다. 추천과정에서부터 여학생은 제외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1. 대졸 여성의 취업 현실

대졸 실업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졸 실업자가 10만명을 넘어선 지 오래이며, 올해에는 전체 기업체들의 신규채용인원이 전년

에 비해 10%가량 줄어든 데다가 대졸취업희망자는 지난해보다 2만명이 늘어난 13만명에 이르고 취업대수생도 10만명에 이르고 있어 취업난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여대생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88년 취업율이 남학생 51.6%, 여학생

29.8%로 2배 가까이 벌어졌던 격차는 더욱 큰 폭으로 벌어지리라 예상이다. 굳이 수치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취업을 앞둔 여대생들의 격정과 구직경쟁에 나섰던 선배들의 경험담은 여성취업의 어려움을 체감적으로 확인

할 수 있게 한다.

취업을 자체가 낮을 뿐 아니라 여성에게는 여러가지 차별의 벽이 존재한다. 추천과정에서부터 여학생은 제외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성적과 관계없이 남학생 우선 순위로 추천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느 대학에서나 비밀비책한 현상이다. 공개 모집에서도 여성은 아예 제외된다. 용사자격에 여성 모집이라고 나와 있지 않은 경우 여성이 용사에 봤자 합격할 가망이 없다는 것은 거의 상식에 속하는 이야기이다. 50대 기업 중 여성 채용계획이 있는 회사는 손꼽을 정도이다.

금융기관의 뿌리깊은 여성차별관행도 여성 용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다. 여대생이 선호하는 국영기업체, 공사의 경우 군필자에게 주어지는 5%의 가산점 때문에 여성은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야 간신히 합격을 바라볼 수 있다. 이 밖에도 면접 과정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불합격된다든지, 여성에게 용모단정, 나이 제한 등의 규정을 두는 것도 종종 있어 왔

던 일이다. 금년 초 모 대학의 졸업생을 상대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80% 이상이 한 번 이상의 취업차별을 겪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여성은 점점 자신감을 잃고 상대적으로 제한된 직종과 낮은 보수의 조건으로 하향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도 구할수 없을 경우에는 취업이 안되어 비관자살이라는 극한 상황을 낳기도 했다.

2. 여대생 취업난의 원인

여대생 취업난의 원인은 전체적으로 대졸 실업의 원인과 그 뿌리를 같이 하며 여성차별로 인해 더욱더 가중화되고 있다.

대졸 취업난의 직접적인 원인은 81년부터 실시된 졸업정원제에 의해 늘어난 4년제 대학정원이 그대로 사회에 배출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81년 6만여명에 비해 85년 12만명, 88년 16만명, 내년에는 18만명으로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할 사회의 인력 수요는 이를 따라

가고 있지 못해 고급노동력의 가치 절하의 치열한 취업 경쟁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근시안적인 인력수급정책과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현상을 낳게 했던 학력간 임금격차에 현재의 대졸 취업난은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89년부터 악화되기 시작한 한국 경제의 사정은 취업난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종속성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며, 고용 사정을 호전시키기 위한 경제의 활성화 또한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요하는 성질의 것이라 할 수 있다.

여대생 취업난은 전반적인 대졸실업에 영향을 받는 것과 함께 성차별로 인해 대졸 실업의 여파는 큰 폭으로 전가받고 있다.

여성차별은 여성 노동에 대한 가치 절하와 모성에 대한 왜곡된 관점의 결과이다. 모성에 대해 사회적인 기능으로 인정하고 헌신적인 여성이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하거나 되어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었다. 한술 더 떠 모성의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시킬 뿐 아니라, 결혼·임신을 이유로 하여 퇴직을 강요하고 30대의 기혼 여성을 임시직, 가내수공업 등으로 편입시켜 저임금으로 착취하는 등 여성 노동력의 유출·흡수를 용이하게 하고 여성임금을 하락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하기까지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여성 본연의 임무는 가정일'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유포시키면서 여성노동자를 '가계 보조적'이라거나 '부업'이라고 규정지어 동일한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 체계마저 확립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모성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

재하고, 노동에 대한 불평등이 존재하는 조건에서는 '모성과 관련된 비용이 많이 들고, 여성의 직업의식이 희박하다'는 이유를 들어 고용과정에서의 차별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다.

3. 여대생 취업난의 극복 방도

경제 활동 인구 중 40% 이상이 여성인 현실에서 여성 고용에 대한 정책은 더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80년대 후반 이후로 여성의 요구가 구체화되고 있으며, 이는 정책적 차원의 요구로 모아지고 있다.

8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정당이 제정한 남녀 고용평등법에 대해 형식

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아 1989년 3월에 개정되기에 이른 다. 개정된 법은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의 지급 규정, 정년, 퇴직, 해고, 그리고 모집 채용, 교육, 배치 및 승진에서의 여성차별에 대한 처벌강화, 그리고 육아휴직에 대한 규정 개선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차별적 해고에 대한 벌칙조항이 근로기준법에 못미치는 것, 동일임금의 적용범위를 동일사업내로 규정한 것, 육아휴직에 대한 위반시 벌칙조항이 없다는 것, 그리고 고용문제 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조치가 없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법으로서의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벌칙 조항의 강화, 법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그와 동시에 실질적인 여성고용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여성고용할당제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보다 구체적인 연공작업을 통해 구체적인 실효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안으로의 긍정적 가능성을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이 여성 운동의 성과이었듯이, 개혁은 여성의 단결된 힘과 정권과의 역학 관계 속에서 가능하다.

서울지역 여대협에서는 학우들의 힘을 모아, 조직화하고 지속적인 선전을 위한 취업대책위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다. ♣

특집 ● 모집·채용에 있어서의 남녀불평등 철폐를 위한 토론회/토론



모집·채용상 남녀차별 개선방향

윤성자 (서울지방노동청 고용문제조정위원회 조사팀장)

모집에 있어 모집 광고상의 차별은 차별여부가 노출되어 판정하기가 쉽지만, 채용상의 차별은 보통 공개되지 않은 채 은폐되어 있어 차별여부를 판정하기가 어렵다.

1. 서언

근로자의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정년 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의 여성차별을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된 지 2년6개월이 지났다.

그간 동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미흡했던 부분인 ●차별의 정의(동법 제2조의 2)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6조의 2) 규정을 신설했으며 ●분쟁시 사업주로 하여금 성별차별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제19조)을 하도록 하였고 ●벌칙(제23조)을 강화하는 등의 보완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개정내용을 홍보하고, 법의 실천을 촉구하기 위하여 정부는 여성단체, 노동단체 등과 더불어 광범위

한 홍보사업도 전개하여 왔으며, 행정지도와 더불어 실태조사, 복지시설 등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법이 제정되기까지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행 이후 현실까지도 만족할 만한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앞으로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관심이 요구됨을 예상할



수 있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점도 갖게 한다. 더욱이 모집, 채용에 있어서의 차별문제는 고용문제의 관문으로서 여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근원적이고 결정적인 차별일 뿐 아니라, 시발점에서부터 차별은 입사 후에도 악순환의 연속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시정, 정착되어야 한다고 본다.

2. 노동시장 추세 및 여성기피 요인

여성노동의 취업분야는 제조업 중심의 단순기능직, 단순사무직으로 주종을 이루던 60년대에 비하여,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문기능직, 사무판매직, 서비스직에는 여성고용이 확대되어가는 추세이다. 또한 여성근로자라 하면 미혼근로자를 당연히 할 정도로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던 지난 60년, 70년대의 상황과는 달리 기혼여성의 취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결혼이나 임신 등과 함께 퇴직하는 경우도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은 구인난이 벌어지고 있는 생산직의 경우가 대부분이고, 고학력 전문관리직의 경우는 구직난이 계속되고 있다. 많은 기업체에서는 고학력의 전문관리직이나 고학력 사무직 여성근로자들의 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총조사에 따르면 그 기피요인을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

- 단기간의 재직기간으로 기술축적이 어려운 점
- 연장근로의 법적제한, 여건상의 제한
- 유급 출산휴가의 부담
- 생리휴가 등 노무관리의 복잡성

또한 사업주의 인식에 있어서도

- 특정직종에는 여성을 모집, 채용, 배치하지 않은 방침

- 관리직으로는 여성근로자를 승진시키지 아니한다는 방침

- 여성근로자에게는 전문적인 직무교육의 한계를 정하여 실시하는 등 여성을 기피하고 있는 요인이 문제점으로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이러한 기피요인을 다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전통적 사회적 인식이 깊이 자리하고 있음을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

3. 법규정과 차별내용

동법 제6조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실제 법 내용대로 실천되는 예 보다는 차별관행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차별내용을 찾아보면

●모집시

—정당한 사유없이 여성의 응모기회를 전면 부정하는 경우 「남자 정사원 모집」 「영업직 사원 모집, 다만 남자에 한함」 등

—동일직종, 모집인원에 있어 여자에 대하여 제한조건을 설정하거나 특정된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

「정사원 모집 남 30세, 여 25세」, 「대출사원 모집 단, 여자는 미혼에 한함」 등

●채용시

—동일학력의 경우 여자를 남자보다 낮은 직급에 채용

—동일학력의 경우 여성은 임시직, 남성은 정규직에 채용

—채용 시험에서 군 복무자에게 가산점 혜택 부여 등을 들 수 있다.

4. 성공사례

모집, 채용 부분은 기존의 근로기준법 등과 중복되는 부분이 아닌 새 분야이기 때문에 해고나 퇴직 등의 사례와는 달리 실제 처리된 사례가 별로 많지는 않다.

그 하나가 한국여협이 '89년도 모 일간지에 모집 광고를 했던 모 국영기업체를 상대로 "채용상 차별금지 촉구 건의서"를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처리되었던 사례로서 그 내용은 "용시연령의 남녀차별과 미혼제한"이었으며 그 결과 동기업체는 인사규정상의 차별규정(연령차별, 미혼제한, 기혼여사 입사배제)을 일체 시정하였으며 아울러 이 사건으로 인하여 기능직여사원(대부분 여사원)들의 관리계열로의 전환고시제의 길도 트였었다.

그 두번째는 각 일간지에 특종기사화되었던 내용으로 서울시 여대협이 '89년 11월에 고발한 (주)신도리코 등 4개 회사가 검찰로부터 약식기소 판결을 받아 "사실상 유죄"임이 입증되었던 사례이다.

이 사건은 여성의 취업난과 균등한 남녀고용기회 보장 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주목되는데, 검찰은 공소장에서 "사무, 생산, 연구직 같은 직종이 모든 여성에게 부적합하다는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모집 대상을 남성으로 국한시켜 남녀의 평등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으며 모집에 있어서 여성의 제한은 해당직종에 대한 남녀의 능력이나 근무여건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일방적인 사회관행이나 인식 등에 따른 것이 많아 이같은 결정은 앞으로 모집의 불평등을 시정하는데 시사하는 바

가 크다고 볼 수 있다.

5. 개선방향

남녀고용평등법의 정착화는 곧 동법의 기본적 목적을 달성하는 일이다.

모집, 채용에 있어서 저학력 생산직과 고학력 전문관리직으로 구분하여 보면, 전자에 있어서는 구인난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반면, 후자에 있어서는 구직난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아래와 같은 개선 및 대책이 요청된다.

1) 학교교육과 직업교육의 연계 및 확대

저학력 생산직 여성 노동력에 대한 학교교육의 개편과 직업교육과의 연계 및 확대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노동시장에서 저학력 생산직의 경우는 구인난 추세가 이루어져 있기는 하나, 그간 여성 노동은 산업구조에서 기간 노동자로서 또한 전문직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채 단순기능직, 단순사무직 중심으로 일해왔기 때문에 단기고용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앞으로 산업구조가 점차 3차 산업으로 이동하게 됨에 따라 여성의 고용기회가 확대되기는 하나, 이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능력을 가진 여성들이 과연 어느 정도이며, 기간산업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까 하는 의문점이 주어져서 서비스업의 일부내용을 살펴보면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수입면에서 활동한 차이의 수입을 올리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 문제 또한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면을 개선 보완하는 대책으로서

- 현재 실업고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상업학교나 대학진학을 하지 않는 인문고의 여학생들의 교과과정의 개편과 아울러 여자공업고의 신설 또는 진출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문호개방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과거에는 힘과 경험만으로만 가능하던 작업들이 기계의 자동시스템, 컴퓨터화됨으로써 여성들도 각종 기계의 조작법을 익히면 다양한 기술분야에서 일할 수 있고, 다양한 산업분야에 여성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여성직업 훈련원도 '91년 3월 개원토록 되어 있으나 점차적으로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좀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다.

2) 모집 채용에 구체적 조항 설정

고학력 전문 관리직의 모집 채용 문제는 차별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분야로서, 고학력 전문관리직을 포함한 여성근로자를 위한 법적 조치의 보완이 따라야 한다고 본다.

현재의 모집 채용에 관한 법 규정은 너무 포괄적이고 막연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모집에 있어 모집 광고상의 차별은 차별여부가 노출되어 판정하기가 쉽지만, 채용상의 차별은 보통 공개되지 않은 채 은폐되어 있어 차별여부를 판정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현행 제도적인 뒷받침으로는 고령법 제19조에 「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의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입사시험에서 여자라는 이유로 합격에서 탈락된 분쟁이 일어나면 회사측에서는 시험점수라든가 제반 타당성있는 이유를 증명하여야 되는 것이다. 이 규정은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포괄적인 의미는 있으나 구체적인 법적 조치의 강화가 요구된다고 보아진다.

참고로 외국의 예를 찾아보면

- 위반자에 대한 처벌과 아울러 피



해를 입은 여성에게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하는 내용

●사업주에 하여금 - 채용공시자의 면접의 기록을 보존토록 하는 것 - 채용, 불채용이유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것 - 면접시 질문내용을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것에 한정하는 내용 등을 준수토록 하는 것 등이 있다.

이상의 외국 예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절한 규정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나가야 된다고 본다.

3) 분쟁 조정 제도의 보완
현행 분쟁 조정제도는 행정지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제도로 보아지며 고용문제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사법권을 가진 근로감독관을 조정위원회에 배치하여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검찰에 송치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의 노동위원회 제도와 같이 직접 관할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다고 본다.

4) 동법의 정착화를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사업주의 올바른 근로여성관의 제정립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

해 국민여론화, 국민적 차원에서 제 동들을 위한 여성단체, 노동조합 정부와 부단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하겠다.

5) 여성근로자에게도 자주적인 직업의식과 권리의식을 고양시키고, 자각적인 행동으로 상기와 같은 기피요인이 시정되도록 하여야 된다고 본다.

종합토론

사회 : 김영정 박사

사회 : 종합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주제에 대한 제안이나 대안을 제시해주거나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 : 저는 숙대 행정학과 재학중인 고인혜입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국가공직은 남녀차별이 없고 평생직장으로 보장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행정학과를 진학했습니다.

저는 7급공무원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험과목은 9과목입니다. 남자는 군복무를 마칠 경우 3~5% 가산점이 주어지는데 이는 총점에서 45점을 더 얻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것이 여자에게는 얼마나 불리한 시험인가를 예를 들겠습니다.

87년에 총무처는 325명의 공무원을 채용했는데 거기에 여자는 7명이었고, 작년은 200명중에 2명, 재작년은 200명중에 5명이 합격했습니다. 이 차

이가 말해주듯 여성들은 최고의 성적이 아니라고는 합적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것 자체가 실제적인 차별이고 불평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7급합격의 어려움으로 인해 9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학생이 늘고 있습니다. 9급 합격자중 여성의 40~45%가 대졸 여성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 고학력의 하향취업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고등전문인력의 낭비라는 측면에서 또 하나의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사업주나 근로자의 역할이나 의무보다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선도적 역할이 없이는 이런 불평등을 개선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봉주 : 이 가산점 문제는 금년내에 바로 개선이 되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실제로 기업이 대학에 구인을 의뢰할 때 취업희망자를 100%로 놓으

면 여학생이 27.8%면 나머지가 남학생인데 여학생의 구인희망은 단지 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관련조직·공사 등으로 취업처를 특화하고 있는 여학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군복무를 했다고 해서 3~5%의 가산점을 준다는 것은 차별정책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은 총점에 24~45점을 더하여 주는 것으로 한 대학의 대입시험에도 커트라인 단 1점에 수십명이 몰려있다고 볼 때 전국적인 공개시험에 이 가산점은 원천적으로 여학생의 취업을 봉쇄할만큼의 차별정책이므로 반드시 올해내에 고쳐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할당제 문제가 나와서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고용의 수급문제는 자연적인 것이 좋지만 고용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보니 여대생채용촉진법 같은 각론적인 법을 제정하여 4

모집, 채용에 있어서의 남녀불평등 철폐를 위한 토론회

일시 : 90. 10. 26 (금) 14:00

주최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5년 정도라도 한시적으로 시행했으면 합니다. 또 기업체와 구인자들과의 모임의 장이 여성단체들이나 노동부 등에서 연합하여 꾸준히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또 입사후 혹은 결혼후의 문제로 육아나 가정관리, 탁아시설 보조금 제도 등에는 강제적인 규정을 두는 법근거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 : 저도 군복무에 따른 가산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산점제도를 위해서 노력할 때 느낀점인데 모든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전부 남성들이며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서 철저히 벽을 쌓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근본적인 문제점은 가산점 부과의 발상에서 보듯 우리 사회의 모든 정책과정과 결정은 다수의 남자가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여성의 정책참여가 저조한데서 발생한 결과로 정책결정과정이나 입법부 등에 여성의 참여가 많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김금래(여협 사무총장) : 제가 일하

면서 느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는 여성운동 측면에서 노력하면 여성의 몫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여성들이 권리를 찾으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자포자기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몇년 전에 수도권검찰원을 남성에 한해 채용한다는 광고를 보고 저희 여협에서는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여성들에게도 문호가 개방되었습니다. 이 여성 수도권검찰원에 대한 반응이 좋아 그 뒤로는 전문대를 졸업한 여성들로 전원 채용했습니다. 이와같이 법에 보장되어 있는 규정들에 차별이 있을 때에는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여 시정해 나가면 사회분위기를 전환하면서 실질적인 과급효과 또한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취업당사자 자신이 자신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 개선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봉주 : 고용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기업으로 주식회사 서풍(P&G)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은 동등하게 남녀를 공개 채용시험을 거쳐 성적으로 뽑고 승진에 있어서도 똑같은 조건으로 인사이동을 합니다. 이러한 성공사례담과 여성이 업무수행능력면에서 뒤지지 않는다는 객관적 감증을 통한 연구발표 등으로 고용에 있어서 남녀불평등 철폐를 여론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윤성자 : 가산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근거법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통과절차가 있어야 하므로 시간상 올해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과 국회의원들에게도 협조요청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김근화 : 제가 노동에서 근무할 때 (1976. 9~1985. 7)의 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느날 저는 일고용자의 노동단가표를 보았습니다. 일고용자란 예를 들면 새마을 취로사업이나 국가가 하는 전매사업에 1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단가표에는 아무런 직무의 분석도 없이 남자는 12,000원, 여자는 7,000원씩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총의 이름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고 노동부에서는 이것의 잘못을 인정하고 곧 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고쳐야겠다는 뜻을 가진 사람이 행정부나 단체, 조직에 있다면 그 일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가산점문제의 해결을 위해 타협점을 모색해본다면 군복무의 가산점을 인정해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행정학과 학생이면 예비행정관리자로 6개월 정도 일선에서 행정업무를 마치고 증서를 주어 그 증서가 있는 사람에게는 군복무가산점과 똑같이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방법도 한번쯤 고려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자: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 현재 여성단체협의회는 근로여성위원회 위원으로 계신 현양대학교 김재원 교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재원 교수: 먼저 이러한 남녀차별에 대하여 그동안 근로여성고발창구에 접수된 내용을 모아 근간에 여성차별 사례집을 낼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차별의 완화대책으로는 장단기로 나누어 개선이 가능토록 할 수 있는 실천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 5% 가산점 개선

만으로 불충분하며 단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대책의 실행이 필요합니다.

먼저 써머(summer) 인턴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기업체에서 남학생을 위주로 이 제도를 주도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거치면 거의 대부분 채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무시험 추천이 아직도 많고 무시험 추천이 아니더라도 시험의 응시는 똑같이 하고 사실상 채용은 남학생만 하는 사실상 무시험 추천이 성행하고 있는데 이는 우수한 대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거의 100%가 남학생입니다. 취업경쟁률이 점점 높아지는데 이러한 차별행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여성에 대한 차별은 계속 존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별적 관행을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미혜(여성개발원 수석연구원):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불평등을 철폐하려면 기업측에서도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여길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업이 이윤추구없이 움직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므로 정부는 여성 근로계약이나 승진부문에 있어 불평등 철폐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한 기업에 우선적으로 국가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다른 여타의 사항은 고려치 않고 예를 들어 설명한 것입니다. 또 여성단체는 성공사례를 많이 홍보해서 여성들의 관심을 운동으로까지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불평등을 철폐하지 않는 기업의 물건을 사지 않는 등의 소비자운동까지 겸해서 한다면 그 효과 또한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우리가 오늘 토론한 내용은 새로운 것보다는 모집·채용에 있어서

남녀 불평등 철폐를 위한 방안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었는가 혹은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따라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우리의 불평등 철폐를 위한 일이 중요하면서도 전척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데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와 전략을 가지고 정부와 민간단체가, 기업체와 여성자신이 꾸준히 노력하고 추진해 나간다면 앞선 사람들의 흔적으로 후에 열매를 거두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토론에 참가하고 끝까지 경청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이달의 여성계동향

모집·채용에서 남녀불평등에 관한 논의 전개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여성들의 사회진출욕구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모집·채용에 있어서의 불평등 개선 방안」 논의가 활발히 전개됐다. 먼저 포문을 연 곳은 한국노총. 지난 9월 서울 아카데미하우스를 비롯, 대구·부산·광주·인천지역에서 개최했던 「여성의 모집과 채용에서의 차별개선대책토론회」의 내용을 정리, 12일 설명회를 가졌다. 노총은 ▲고용문제조정위원회의 과반수를 여성위원으로 할 것 ▲모집·채용·교육·배치·승진 등에 구체적 조항을 설정할 것 ▲여자근로감독관의 증원 ▲여자직업훈련원 설치 ▲지방 차원의 근로여성위원회 조직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근로감독의 강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지침서 개발 ▲여성능력개발 프로그램 개발 등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도 26일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같은 주제의 토론회를 벌였다. 김봉주 대졸인력취

취업·결혼시즌인 10월 한달동안 여성계는 이에 대한 여론조상에 박차를 가했다. 특히 여성계는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이후 3년여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음을 중시, 취업의 첫 관문인 모집·채용의 성차별시정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망국병으로까지 앞걸어지고 있는 과다혼수문제는 「여성이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라는 인식하에 자체 반성을 꾀하는 분위기가 거세게 일었다.

한편 취업여성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택아관련입법이 마침내 민자당측의 특별법안 국회제출로 이어짐으로써 1년여를 끌어온 택아관련 특별법 제정은 일단락지어진 셈이 된다.

홍은희 (중앙일보 생활과학부 기자)

업문제연구협의회회장은 현재 국영기업체 등에서 남성에게 주고 있는 3~5%의 가산점을 호봉제도에서 우대하는 것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서울지방노동청 고용문제 조정위원회 조사담당 윤성자씨는 ▲모집·채용에 구체적 조항설정과 함께 외국의 경우처럼 ▲위반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 여성에 대한 손해배상 ▲사업주는 채용용시자의 면접기록보존 의무화 및 면접시 질문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 한정할 것 등의 보완책을 제시했다.

이같은 여성계의 「목소리 높임」에 발맞춰 아세아·태평양 변호사협회와 민중당(가칭) 등에서도 「남녀평등」의 입장에서 여성의 사회진출문제를 제기, 여론화에 박차를 가했다.

과소비추방여성운동 연합, 호화혼수에 관한 토론회 개최

가을 결혼시즌을 맞아 과다혼수를 경계하는 여성계의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됐다. 70개 여성단체의 연합체인 과소비추방여성운동연합은 이달의 주제를 혼수문제로 정하고 26일 새마을부녀회 중앙연합회 주관으로 「호화혼수, 이대로 좋은가」 주부토론회를 열었다. 과소

비추방연합소속 55개 여성단체회원들과 정부관련기관장 부인등 3백50여명 주부들은 7개 분과로 나뉘어 ▲예단 ▲혼수 ▲혼례절차에 대해 3시간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부들은 호화혼수의 주범은 「예단」 이라는데 의견을 함께하고 ▲분예 넘치는 상대방 고르지 않기 ▲예단을 안 주고 안받기 ▲결혼에 관한 어머니의 식교육 ▲전통을 감안한 새 예식절차 마련 등을 제안했다.

한편 과소비추방연합은 토론회에 대한 평가회를 11월초에 갖기로 하고 「바른 혼례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 정무제2 장관실과 함께 구체적인 표준 모델을 만들어 전국에 보급시키기로 했다.

여성의 전화도 회지 「백들」을 통해 「상풍화된 결혼식」을 비판하고 ▲웨딩드레스 대신 다용치마 노랑저고리 혹은 색동저고리를 결혼예복으로 할 것 ▲폐백은 양가부모를 비롯, 직계가 족에게 함께 인사를 드리는 절차로 삼을 것 등을 제안했다.

민자당, 택아관련법안 국회에 제출

1년여를 끌어온 택아관련입법이 24

이달의 여성계동향



여협 주최 「모집·채용에 있어서의 남녀불평등 철폐를 위한 토론회」



「호화은수, 이대로 좋은가」대토론회



제5회 훌륭한 아버지상 시상식

일 민자당이 「영유아의 보호·교육에 관한 법률안(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독립법 마련을 눈앞에 두게 됐다. 작년 9월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탁아입법에 대한 여성계의 요구를 잠재우려했던 민자당은 평민당측의 법안제출(이것은 후에 평민·민주단일안으로 수정돼 국회에 제출됐다)에 이어 한국여성단체연합 탁아문제특별대책위를 주축으로 한 강력한 여론화작업에 등이 떠밀려 특별법 입안으로 방향전환을 했던 것.

민자당의 법안은 전문 6 장 35 조와 부칙 6 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탁아관련 업무를 보사부로 일원화하고, 교육기능을 첨가시킨 것으로 일단락지어졌다. 또 탁아대상은 6세이하 취학전 어린이나 보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2세까지 연장가능토록 하여 폭을 확대했으며 유치원·학원 등에서도 보육시설이용료는 보호자 부담이 원칙이나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정부가 보조하도록 하고 있다.

정신대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

일제잔혹사의 절정으로 꼽히는 여자

정신대에 대해 여성계가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한·일 양국정부에 공개서한을 보내 일본 시미즈노동성직업안정국장의 망언에 공식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정신대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시미즈국장은 일본 의회에서 「종군 위안부는 일본 정부와 무관하여 따라서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들 단체들은 이밖에 ▲ 희생자 위령비를 세우고 생존자와 유족에게 보상비 지급 ▲ 역사교과서에 정신대 사실을 밝힐 것 등을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서울Y, 어린이의 성지식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

어린이들의 성지식에 대한 조사가 국내 처음으로 시도돼 관심을 모았다. 서울YWCA는 30일 「어린이 성교육을 위한 화담회」를 갖고 서울 시내 공·사립국교 5~6학년 3백92명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성지식 및 성교육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어린이들은 친구(62.0%)로부터 주로 성지식을 전달받고 있으며, 성에 관한 책을 보거나(49.7%) 비디오를 본 어

린이(21.9%)도 적지 않았다. 특히 이들 어린이가 접하고 있는 대중매체는 아동 뿐만 아니라 주간잡지, 성인영화에 까지 널리 노출되어 조사결과 드러났다.

대한주부클럽, 제5회 훌륭한 아버지상 수상자 선정

대한주부클럽연합회가 선정하는 제5회 훌륭한 아버지상 수상자로 양준호씨(65·강남제약대표이사)가 뽑혀 25일 프레스센터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양씨는 BBS연맹 아산군 지부장으로 15년간 역임하면서 슬하의 1남 5녀를 훌륭히 키운 것은 물론 60여명의 불우 청소년을 방충봉신고교·대학에 보낸 공로로 평가를 받았다. 양씨는 지금도 매년 20명의 소년·소녀가장에게 생계비·학비보조를 해주고 있다.

여협, 전문·사무직 취업모의 탁아실태조사 발표

전문직·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는 취업모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양육 문제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여성단

체협의회가 전문직·사무직여성 4백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0.6%가 자녀양육문제로 직장을 그만둘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아이의 정서·교육 문제」(92.8%)가 그 주원인으로 꼽혔다. 응답자들은 승진·승급 등의 문제보다 자녀위탁(31.8%)을 더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었는데, 응답자의 17.6%가 집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친정이나 시댁 부모에게 아기를 맡기고 떨어져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희경씨, 계원예고 교장으로 취임

정희경씨(전 현대고교장)가 10일 계원예고등학교장으로 취임했다. 계원예고는 우경문화재단(이사장 전숙희)이 운영하는 종합예술학교이다. 정씨는 서울대·성균관대학교수를 거쳐 이화여고·현대고교장을 역임했으며, 71~73년 남북적십자회담대표, 88년 민자당 서울 강남구 국회의원후보 등 사회활동을 한 바 있다.

한국여성학회 회장에 정금자 교수 선출

한국여성학회 회장으로 숙명여대 정금자 교수(영문학)이 선출됐다. 한국여성학회는 11월3일 이대 중강당에서 제7차 총회 및 학술발표회를 열고 강문의 회장(서울여대·아동학) 후임으로 전 아세아여성연구소장인 정금자교

수를 선출했다. 한편 이날 열린 학술발표회에는 ▲ 여성과 도덕성(홍순정 방통대교수·유아교육) ▲ 성역할 정체감유형과 학습된 무기력(김영희 이대강사) ▲ 이민여성과 스트레스(김은경 미국 러거스대 사회학박사과정) ▲ 여성영재의 교육에 대한 연구(조석희 한국교육개발원) 등의 소장학사들의 논문이 발표됐다.

근로여성 고발창구 이용안내

본회는 직장에서의 성차별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여성고발창구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상담내용: 동급직위에 대한 차별임금문제, 승급 및 직무배치상의 차별, 결혼퇴직종용, 기타 의회상의 문제 등 근로여성이 겪게되는 제반문제, 취업상의 차별문제.

상담방법: ●전화 793-5196
●편지: 용산구 한강로 3가 40-427(140-013)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근로여성 고발창구 담당자.
●직접내방 상담

우리 농산물 먹기 운동

김은경 (대한YWCA연합회 간사)

「수퍼에서 사 먹을 수 있는 야채를 농약도 없다니까 직거래로 사 먹는 것쯤으로 생각하고 농산물 직거래 운동을 받아들이는 주부들이 많다.

농산물 직거래는 결국 농민이 살고 도시 소비자가 사는 것이다. 단순히 사고 파는 관계를 뛰어 넘어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 땅과 산천초목을 살리자는 것이다.」

농산물 직거래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도시 주부의 말을 들으며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 농산물 먹기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 싶다.

YWCA는 “나부터 실천하자”는 바른살 실천 운동을 전개하면서 우리 농산물 먹기운동을 벌이고 있다.

“나는 제철 제맛에 나는 우리 농산물을 먹습니다” 이런 나의 선언을 하며 우리 농산물 먹기운동을 시작하고 보니 이 운동의 의미는 참으로 크고 중요함을 새삼 느끼게 된다.

신토불이(身土不二)라는 말이 있다. 우리 땅에서 나는 농산물이 우리 체질에 가장 알맞게 되어 있는 것이 창조주 하느님의 사랑의 창조원리임에도 과학의 발달의 산물이라고 앞서 재배하고 남의 땅의 것 들여다 먹고 하면서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우리 농산물 먹기운동은 제철 제맛에 나는 우리 농산물을 먹되 농촌과의 직거래를 통하여 불필요한 유통과정을 없애고 땅사랑, 생명사랑, 나라사랑, 고향사랑, 이웃사랑이 퍼져 나가기를 바라면서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나 하는 자각이 일어나게 되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딸기는 딸기철에, 참외는 참외철에 먹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른철에는 조금 비싸게 먹고 제철에는 풍성히 먹으며 저장식품도 만들었다.

그러나 고소득 고소득 하며 앞을 내다 볼 겨를도 없이 달려가다 보니 “제철”이 없어지고 땅에 뿌리 박고 해를 보며 자라던 농산물이 거의 비닐하우스 속에서 계획재배에 의해 생산되고 값은 상류층만 먹을 수 있는 가격으로 뛰어 오르고 말았다.

이런때 전개되는 우리 농산물 먹기운동은 제철 제맛에 나는 우리 농산물을 먹되 농촌과의 직거래를 통하여 불필요한 유통과정을 없애고 땅사랑, 생명사랑, 나라사랑, 고향사랑, 이웃사랑이 퍼져 나가기를 바라면서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U. R. 협정으로 위협받고 있는 농민의 생존권 문제를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 함께 극복해 나가려는 국민운동의 차원에서 이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YWCA가 전개하고 있는 농산물 직거래 운동에 대한 호응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이어서 용기도 얻었고 가능성도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이 운동의 의미는 생각지도 않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편의만을 찾는 생활이 몸에 배인 소비자가 의외로 많아 주저앉고 있을 때가 있다.

저농약, 무공해 농산물 재배만이 이 땅을 살리고 생명이 살고 우리 모두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큰 믿음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에 삶을 바친 농민이 있기 때문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시중보다 비싸다느니 아파트 ○층 ○호로 배달해 달라고 수퍼마켓 종업원에게 하듯이 요구할 때는 20kg들이 팔자루를 들고 배달해 주고 오긴 했지만 가슴앓이가 생길 것 같더라는 실무자의 얘기다.

농민들이 땅을 포기하고 주저 앉으면 온 나라가 주저 앉게 되는 것인데도 좁은 땅안에서도 이토록 안동할 때가 있다니 안타깝기만 하다.

YWCA는 농산물 직거래를 위해 전국 주요도시에서 농산물 장터를 모두 개설했다.

무우, 배추, 고추, 참깨, 인삼, 쌀, 벼, 감자, 고구마, 호박, 유정란, 전나무, 사과, 배 그리고 과일로 만든 가공식품 등을 장터에 내놓았다. 농촌에서 농민들이 직접 농산물을 가져 오기도 했다. 또는 단위농협 생활소비자 협동조합, 우리 농축산물 먹기 운동본부, 한살림모임 등과 연결하여 농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선보였다.

경험 부족으로 경제적인 손실도 있었고 무우, 배추 등의 보관이 어려워 상품가치가 떨어진 것도 있었으나 농민들에게는 재값을 받고 하고 소비자에게는 질 좋고 싱싱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어서 큰 기쁨을 느끼기도 했다. 우리 농민과 우리 산천초목을 살리자는 성격의 「우리 농산물 장터」임을

알고 찾아온 소비자들이면서도 큰 배추, 싱싱한 벼를 가져 가야한다며 쌓여 있는 물건들을 이리저리 저리저리 훑으며 흐트러 놓을 때는 함께 사는 세계의 인식이 체질화되기에는 아직 멀었구나 하는 한숨이 나왔다. 그러나 이런 경험들이 쌓일 때 생명을 위협하는 공해문제도 부분적이지만 해결될 것이고 내 이웃인 농민에 대한 애정이 오갈 수 있을 것이다.

YWCA가 전개하는 「농산물 장터」가 상설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 소비자의 요구를 제때에 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단점이며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직거래를 위한 단위 농협 상설매장이 있긴 하지만 매장수가 적은 것이 불편하다. 농협은 소비자의 직접적인 요구를 정확히 파악한 후 농민과의 연결에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농산물 직거래 운동이 몇몇 단체의 운동이 아닌 전국적으로 확산되려면 우리 농산물에 대한 신뢰구축이 필요하다.

우선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얼마전 미국산 자몽에서 맹독성 농약이 검출되었다는 보도에 소비자들은 자몽을 외면했다. 우리 농산물 직거래의 필요성이 과급되고 있는 이때 이런 외면당하는 일이 없어야 했다. 안전성을 제일 원칙으로 여기지 않는 한 농산물 직거래 운동은 소비자들의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농산물 증대에만 치중하지 말고 생산량에 당장은 차질이 생기더라도 무공해 또는 저공해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농약이 환경오염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은 과연 농민에게만 책임을 돌려야 되는가 하는 물음은 우리

모두 심각히 생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수입농산물에 대해 원산지 증명이 정확히 표기되도록 제도화하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 소문에 듣기로는 중공산 고사리가 싼값에 수입되어 우리나라 고사리 산지에 다녀와서는 한국산 고사리로 둔갑하여 시장에서 소비자의 손으로 넘어간다는 것이다. 있을법한 얘기다. 이런 일이 한두번 통하기 시작하면 농산물 시장의 상품들에 대해 불신풍조가 만연해질 것이다.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먹고자 애써도 뚜렷한 구분이 안되는 한 협조할 방법이 안서게 된다.

우리 농산물 먹기 운동은 「식생활」에 관한 운동에 국한시켜서 생각해서서는 안된다. 국민이 하나되는 운동, 환경을 변화시키는 운동, 국제 경쟁력을 이겨내는 운동이라는 인식으로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겠다. ♣

석주선 선생님

석주선 선생님은 1911년 평양에서 태어나 1944년 동경 일본고등양재학원을 졸업하고 국립과학박물관 공예연구실장, 문화재위원을 역임하고 수도여자사범대학, 동덕여자대학, 단국대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한국복식사 분야에 기여를 마쳤습니다. 한편 일생을 통해 수집한 민속유물을 단국대에 기증하여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을 건립함으로써 민족문화재의 개발과 보전에 기여하였는데 단국대의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으로 선생님을 찾아뵈었다.



본격적으로 전통적 한국복식을 연구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 해방이 되면서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해 10월에 국립과학박물관에 위직하였는데 무료 의복강습회를 열었습니다. 브라우스, Y-셔츠, 바지 등을 만드는 법을 가르쳤는데, 당시 양복 살바느질 풍습이 높아서 연구소에서 배워 자립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일본인들이 철수해 버리고 나니 비단이 생산되지 못하고 우리 천을 우리가 소회시키자는 생각에서 광목, 옥양목 등 남아있는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 깃광목을 가지고 원피스를 만들었

습니다. 왼쪽 가슴에 해바라기 그림을 초코렛색 실로 수놓아 평목의 누런 빛이 살아나도록 하니 인기가 매우 좋았고 때때 바자회를 열어 실비로 팔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전통의복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문헌 연구를 하기 전에 먼저 옛 의복을 구하게 되니 연구에 자극제가 되어 정확한 연구를 위해 옛 문헌이 많은 장서각(창경궁 내)에도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 여자로서 일을 해나가는데 달리 어려운 점은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 여자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점 보다는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힘든 점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격려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문을 공부하기 위해 장서각에서 옛 문헌들을 공부하면서 정인보 선생님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문헌연구도중 모르는 한문을 배우기 위해 일주일에 하루씩 정인보 선생님께 강의를 받았는데 한문은 물론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고, 힌트도 얻었습니다.

그분은 내가 하는 일에 확고한 신념을 갖고 용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유물 수집을 위해 전국을 다니시느라 매우 바쁘셨을텐데…….

■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무척 즐거웠습니다. 종종 수업마치는 종이 울린 것도 듣지 못한 채 강의를 계속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수도여자사범학교는 2년제였는데 졸업 때는 자신이 만든 의복을 졸업까운 아래 입도록 하고 적어도 한복의 동정을 다는 것만큼은 완전히 할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교단에 선 지가 벌써 50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30cm교단에 설 때의 두려움이 아직도 생생하고 수업을 마치면 준비한 강의를 모두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 항상 모자라는 듯한 아쉬움을 느끼곤 했는데 지금도 가끔 특강때 그렇게 느낍니다. 진정한 교육은 자신이 실천한 이야기를 들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공부하여 강의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니까요.

1947년부터 유물을 수집하기 시작하였는데 1958년에 개최된 제1회 궁중의상전은 준비에서부터 제가 직접 뛰어들었는데 성황리에 마치 무척 감격스러웠습니다.

의복을 공부하면서 원형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되어 방학때면 물건을 찾아다니러 옛날 양반이 살았다는 집들을 수소문하여 방방곡곡을 다녔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넉넉지 못하여 모자라는 글씨씨로나마 원고를 쓰면 그 고료로 한 점이라도 모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글도 많이 썼습니다. 대신 집에는 아무런 살림살이도 마련하지 못했지요.

친의 수명은 제한적이므로 이조 5백년 이전의 것은 찾을 수가 없었고, 때때로 미미라가 출토되었을 때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지 못해 어떻게 부패하지 않고 보존되는지를 연구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 선생님께서 오랫동안 정성들여

모은 물건을 기증하셨을 때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 1976년 제가 정년이 되던해 정리 작업을 해보니 3,365점이 모였더군요. 이미 5백점 정도를 모았을 때 개인재산으로서는 한계에 이르렀고, 후손에게 물릴 것을 생각해 왔습니다.

단국대학교에 기증하기로 하고 옷을 옮겨갈 때에는 그 옷 하나하나에 영혼이 담겨있는 것처럼 생각되어 버스에 서도 한자리씩 앉아서 옮기도록 부탁했습니다. 집에 공간적 여유가 없어서 감을 쌓아올리듯이 빈틈없이 쌓아두었는데 행여 도적이 들까봐 무당이 살던 방갈이 무섭고 허술하게 해놓았었습니다.

— 요즘은 어떻게 건강을 돌보시며 생활하고 계십니까?

■ 저는 일이 자를 짧게 한 것 같습니다. 궁핍한 생활로 잘 먹여보지도 못하고 일하는 욕심만 커서 생활은 별로 여유롭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지만, 남은 시간을 이용하여 조각천을 가지고 골무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플 때를 참아가면서 골무를 만들어 골무 하나하나에는 '참을 인(忍)'자가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7백여개를 만들었는데 일천개를 만들어서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여든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요즘도 치마주름잡는 일은 직접하신다니 언제나 지니오던 정직하고 노력하며 언행일치되는 삶을 산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후배들에게도 검소한 생활하기를 당부하셨습니다. ♣



1968년 유네스코 국제문화재이전 및 장서각 등기 회의

영양사

서은경 (영동세브란스병원 영양과장)

영양사는 많은 인력과 물품을 관리해야 하기때문에 수많은 상황에 대한 고도의 적응력을 가져야하고 창조적이고 분석적인 사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통찰력이 요구된다.

영양사는 국민건강관리의 일차적인 보건전문인력으로, 특정집단의 실정에 맞는 영양 및 급식관리담당자이면서 또한 국민에게 올바른 식품선택과 섭취를 돕는 영양교육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영양사는 많은 인력과 물품을 관리해야 하기때문에 수많은 상황에 대한 고도의 적응력을 가져야하고 창조적이고 분석적인 사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통찰력이 요구된다.

영양사가 속한 기구조직이 어느 형태를 적용하고 있는 지를 막론하고 급식업무의 계획·조직·지시·감독·조정 및 평가를 맡고 있는 경양인으로서의 영양사는 영양관리 및 영양교육 뿐 아니라 인사, 사무, 작업 및 노무, 시설 및 기구의 안전, 위생관리 등의 모든 활동의 행정적 책임을 맡고 감독하면서 타부서와의 긴밀한 유대해야 하나의 팀으로서 업무를 수행해나가야 하므로 조직을 원만히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도력이 또한 필요하다.

영양사가 되기위하여는 대학에서 영양사를 하는데 필요한 학과목을 이수하고,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1967년 식품위생법에서 영양사배치의 의무조항 명시로 영양사면허증을 소지한 자에게 한하여만 영양사로서의 취업이 가능하다.

현재 1회 50인이상 집단급식소에서는 영양사의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1990년 현재영양사 배출 인원은 39,479명에 달하고 있으며, 취업인원은 5천여명이다. 활동분야는 67.6%가 사무실, 공장, 기숙사 등의 사업체, 18.0%가 국민학교, 특수학교, 직업훈련소 등의 학교, 10.8%가 병원, 기타 3.6%가 소비자상담단체, 식품업체, 연구소 등이다. 구미 선진국은 치료팀의 한 구성원으로서 환자에 대한 영양적 치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기관

의 영양사가 약 40%를 점유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에 비하여 병원영양사가 무척 적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 4항에 "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 및 병원에 있어서는 1인 이상의 영양사를 둔다"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전국 병원중 영양사가 있는 병원은 약 60%이므로 의사가 처방한 식사공급에 대한 계획과 실시 감독 소홀로 진료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급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급식의 질적인 향상이 어렵고 환자의 기본 영양관리와 식사요법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양사들은 영양사의 공동체인 대한영양사회를 중심으로 본회와 전국적으로 12개의 지부와 분회, 분과조직을 갖추고 영양사의 자질향상과 권익옹호,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봉사를 목적으로 '영양사'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 자질향상을 위하여 영양사 보수교육과 분과별(산업체, 학교, 병원) 학술대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올바른 식생활과 영양교육의 일환으로 매년 실시해온 "영양강좌 및 식



단전시회"와 같은 행사를 실시하여 국민영양향상에 이바지하고 또한 영양사의 사회적 역할을 알리고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국 국민학교의 5%만이 혜택을 받고 있는 학교급식의 확대방안과 병원에서 치료의 일환인 환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개인의 영양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병원기준 급식제도의 마련과 함께 이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병상수에 따른 영양사의 정원확보를 위해 노력중에 있다.

2000년대의 영양사들의 목표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급식과 영양관리와 영양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90년대는 노인성 질환이 크게 대두될 것이며, 현재 선진국의 10대 사인중에서 암, 심장질환, 뇌혈관계질환, 동맥경화증, 간경화증, 당뇨병 등 6개의 질환들은 식사문제로 많이 관련되고 있다. 의학적인 치료와 기술로 이들 중요한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점이 있고, 치료보다 예방이 질병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는 주안점이 될 것

이므로,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교육이 지역사회 의료의 예방적 보건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주민을 위한 각종 질병, 영양교육프로그램 마련과 현재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과 255개의 보건소에 영양사 배치에 이루어져 이러한 국민보건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구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고자 영양사는 급식경영관리와 임상영양관리에 대한 지식축적에 더 한층 노력중이다. 현대의 질병은 문명의 진보로써 생긴 스트레스와 잘못된 생활방식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생각하여 오늘날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급식에 대한 개념은 "식사는 모든 일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육체 및 정신적인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을 목표로 도덕적 가치를 지향할 수 있는 쾌적한 식사환경을 마련하여 대화하면서 즐겁게 하도록 하는 것이 개인 및 기업의 활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구미선진국과 일본 등지에서는 급식을 ▲피급식자의 입장에서 기호와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삼고 있고 ▲위생관리의 철저로 세균증식을 억제할 수 있는 적온관리의 의무화로 이에 수반되는 최신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영양의 균형이 잡힌 선택적인 식단제의 급식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또한 급식시설을 미급식자의 사회활력을 증진시킨다는 목적으로 연구시설과 동등한 비중을 두고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황은 피급식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조리기구 및 시설설비가 대단히 불량하고 노후화되어 있고, 조직상의

문제로서, 관리자인 영양사가 주로 단기간 근무 경력자이기 때문에 급식이 일어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견이 최고결정자에게까지 반영이 안되며 최고정책결정자가 근대적인 급식 개념이 결여되어 급식에 대한 투자 및 정책적인 배려가 없고, 자질 있는 영양사 및 급식종사직원의 수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며 부단히 변화하고 있는 급식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기술교육이 부족한 점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영양사들이 처해있는 사회적 여건과 인식들은 현재 만족할만한 상태에 있지 못하지만, 21세기에는 밝은 장래를 보장받기 위하여 영양사들은 소비자의 요구에 맞게 서비스하려는 마케팅적인 사고로써 국민을 위한 사회적·도덕적·윤리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환경변화의 추세에 대응하여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식생활 방식의 특징을 추적하고 새로운 기술로 국민이 기대하는 영양적 서비스를 창출하며 국민에게는 건강증진이라는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창조적인 접근방법의 모색을 도모중에 있다. ♣

드라마 대사의 신중성 요구돼

매스컴모니터회

이번 모임에서는 'TV 드라마의 대사에서 지나친 비속어와 외래어의 사용이 많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본회 매스컴 모니터회는 10월11일 모임을 갖고 9월6일부터 10월11일 까지 모니터 대상 프로그램이었던 아침 드라마 '사랑해 당신을'(MBC TV), '가을에 온 손님'(KBS 2TV)과 청소년 대상 주간드라마 '사랑이 꽃피는 나무'(KBS ITV)에 대한 모니터 결과를 토론했었다.

A. 사랑이 꽃피는 나무(KBS 1 TV 수요일드라마)

의대생들의 생활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전편에 비해 볼 때 좀 더 평범한 대학생들의 생활에 관한 이야기로 꾸며지고 있어 예전보다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구성이나 줄거리 전개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대학생들이 기거하는 하숙방이 통상적으로 생각되는 하숙방의 규모보다 너무 좁은가하면 여대생 2명이 집에서 독립해 나와 사는 아파트가 딸로는 7평 밖에 안되는 곳이라고 하면서 대학생들이 자취하는 곳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넓고 화려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주인공들이 연극영화과 학생들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다 해도 청소년들로 하여금 대학을 학문

의 장소로 생각하기 보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환상적인 생활로만 기대하게 하며, 학생들의 옷차림이 지나치게 화려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밖에 토론했었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0월6일(재방송) 방영분에서 대학교수(한진희 분)가 학생들에게 연극 이론을 강의하는 중 역할을 잘 하기 위해 뛰든지 해보라고 하면서 "하다못해 가사일을 해보든지"라고 하는 대사가 나오는데, 가사일을 '하다못해' 할 수 있는 일 정도로 비유해서 말하는 것은

주부의 가사노동을 과소평가하는 구태의연한 처사라고 본다.

2. 10월10일 방영되었던 '어떤 개인날'에서 수재를 당한 친구를 돕는다는 내용은 좋았으나 도와주는 대학생들의 태도가 진지함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3. 아들이 대학가기를 소원하는 어머니(오미연 분)의 집착이 9월 26일, 10월3일 두 주에 걸쳐 필요이상으로 길게 방영되었다.

B. 가을에 온 손님(KBS 2TV 아침드라마)



상당한 과수원의 풍경과 남녀간의 우정을 매우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등 그 내용이 시청자를 압도하고 있으나 짧은 시간동안 가벼운 마음으로 보아 넘기게 되는 아침 드라마로서는 소화하기에 딱찬 느낌이다. 그리고 시골집의 도시화된 면면과 과수원의 전원이 아름답게만 묘사되어 시골생활을 왜곡시킬 우려 또한 지적되었다. 또한 귀남이 엄마의 무식함을 보여주기 위해 서인지 "밥 먹을까, 안 먹을까", "지랄하구 자빠졌네" 등의 비속어가 지나치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식의 표현은 언어순화의 차원에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밖에 지적되었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9월17일 방영분 중 저녁시간에 아버지를 찾아온 딸(김창숙 분)에게 "주부가 저녁도 안짓고 다 저녁때 댕 일이나"라고 하였는데 주부는 저녁시간에 나가다니는 안될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편견이다. 더욱이 그 딸이 주부에게 앞서 유치원을 경영하는 유치원 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전혀 고려치 않고 주부라는 역할에 묶어 표현함은 더욱 시대착오적인 여성편견으로 보여진다.

2. 9월22일 동생(최민수 분)이 누나(김미숙 분)에게 "저쪽에다 파킹해요, 그 쪽이 파킹하기가 좋아요"라고 두번이나 연거푸 '파킹'이라는 외국어를 사용하여 듣기에 거북했다. 우리말로 표현해도 의미전달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 단어를 굳이 외국어로 표현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한다.

3. 9월28일 어머니(반효정 분)와 아들(최민수 분)이 사과를 상자에 골



래 큰딸이 어머니에게 반말을 사용하고 있어 귀에 거슬린다.

1. 8월27일 장인과 두 사위의 대화 중 장인이 "해방후 여자는 나이롱 양말이라고 했어"라고 하는가 하면 큰 사위는 "여자에게 안물리게 다행이죠"라고 말하고, 장인이 둘째 사위에게는 "자네두 물렸어. 예라 이 사람아"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런 용어는 방송에서 사용되기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2. 10월9일 세세 사위가 "아버님 절 받으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절을 하는데 어머니는 옆에 세워두고 아버지만 혼자 앉아 절을 받는 장면이 나와 매우 어색하게 느껴졌다.

3. 9월24일 완주(김희애 분)의 남편(김영철 분)이 회사에서 자신이 산 오디오를 조금 깎아줄테니 누구 살 사람없냐고 제의하자 직원 한 사람이 마누라가 다 해울텐데 뭐하러 사나는 대답을 하였다. 이는 은연중에 신부의 혼수감으로 오디오가 당연하게 들어가야 한다는 사고를 드러내어 불필요한 과다혼수를 조장하게 되는 것이라 하겠다. ♣

라 넣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중 아들이 "뽕이 그리좋아 웃으세요, 실성하셨수"라고 하는데 어머니가 '실성'이란 표현을 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농담이라 하더라도 지나치다고 본다.

C. 사랑해 당신을(MBC TV 아침드라마)

보편적인 삶의 경험과 생활이 밀착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 공감을 주고 있으며, 아기자기한 가족간의 사랑이 잔잔한 감동을 준다. 그러나 어머니(여운계 분)와 큰딸(김형자 분)이 각자의 남편에 대해 극존칭어를 사용하는데 반

모자보건

모자보건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국민의 체위와 자질을 향상시키며, 특히 여성의 평생건강을 좌우할 중요한 것임에도 모자보건이란 용어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1. 모자보건사업의 역사적 배경

현대문명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모자보건사업이 없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나라에 모자보건의 일부라 할 수 있는 영유아보건(Well Baby Clinic)사업이 처음 소개된 것은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해서였다. 복음을 전파하면서 찾아오는 아이들의 성장발육을 측정하고, 영양제라하여 간유(Vitamin AD)나 구충제를 공급하기도 한 것이 50~60년전의 일로 이때까지는 Vitamin AD의 과잉이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인 사실이 판명되기 이전의 일이다.

그것도 대도시에 국한된 일이었으며, 대중에게 크게 환영을 받지 못하였다. 이 시기의 분만 즉, 모성을 위한 서비스는 거의 재래식의 산관할머니에 의존했으며, 조산원이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한참 후의 일이었다. 일제말기에는 아이의 출생을 권장하여 되도록 많이 낳았으나 사망자가 많아 항간에는 반타작(半打作)이란 말도 있었다.

1948년 정부수립 후에는 정부사업의 일부분으로 채택되었으며, 1956년 보건소법이 제정되면서 보건소에서 모자보건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여 오다가 1973년 모자보건법을 제정하여 본



김점자

(보건사회부 보건국 가족보건과 행정사무관)

격적인 모자보건사업이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모자보건사업의 의의

국가의 발전은 건강한 국민에 의해 보장되고 국민의 건강은 그 기초가 영아의 건강에 있다고 하겠다. 나아가 영아의 건강은 임신의 과정에서부터 시작되므로 당연히 모체가 건강해야함은 자연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모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여 건강한 자녀를 낳게 하고 태어난 어린이를 건강하게 성장발육케하여 개인의 건강과 행복, 나아가 국민보건을 향상시킴을 모자보건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기 이전에는 임신분만의 과

중이 필연적으로 여성이 겪어야 할 자연현상의 하나로 의학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날과 같이 모든 분야가 발전변화한 후에도 재래의 폐습으로 남아있어 발달된 의학의 혜택을 전여성이 받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선진국의 경우 영아 또는 임신부 사망율이 경이할 만큼 낮다.

가까운 일본은 임신부 10,000명당 1.35명(1986년)이며, 영아의 경우는 1,000명당 5.2명이다. 우리나라의 영아사망율은 1,000명 출생당 11명(1989년)이며, 10,000명당 3.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아직도 국가개발수준의 한 지표로 삼고있는 우리나라 모자보건수준은 미흡한 실정이다.

3. 모자보건사업 대상

모자보건의 대상은 모성인구와 소아인구로 구성된다. 넓은 의미의 모자보건사업 대상은 "초경에서 폐경에 이르는 모든 여성"과 "출생에서 사춘기에 이르는 모든 남녀"를 의미하며 전인구의 약 2/3가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자보건대상은 "임신·분만·산욕기 및 수유기에 있는 모성"과 "미취

미취학아동은 나라마다 개념이 다르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학교 입학전 아동(만 6세미만)이 되고 미국의 경우 만 5세면 유치원을 의무적으로 가게되어 있어 만 5세미만 등으로 구분되어진다.

4. 모자보건의 중요성

가. 건강한 다음세대를 가지기 위해 즉, 국민의 체위와 자질향상을 위하여 "새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은 정서나 행위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육체적인 건강의 모든 기초가 어릴때에 다져짐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나. 대상의 특성

임산부·영유아는 연약해서 질병에 걸리기 쉽고 약화속도도 빠른 반면 조기진료반응도 빨라서 이들 질병 대부분은 평소의 적절한 관리로 예방이 가능하다. 이런 특성으로 성인·노령층의 대상사업에 쏟는 투자나 노력보다 월등히 신속하고 효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평소 관리나 조기진료를 통한시할 때 약화속도는 급속하고 평생 불구나 기형을 가져올 확률도 다

른 연령층에 비해 높다.

다. 생산성 저하

모자보건 대상 인구들의 대다수는 비노동인구로서 직접 생산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영유아와 모성의 불건강은 간접적으로 그 가족의 생산성을 저하시킨다.

5. 정부모자보건사업 내용

국민의 자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할 인적자원 확보를 위하여 모성 및 영유아의 사망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고 모성 및 영유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 체위향상도모를 기본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가. 임신부·영유아 신고·등록관리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또는 모자보건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민간의료기관에 신고한 임신부·영유아에게는 모자보건법에 의거하여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하여 주고, 철저한 산전·산후·영유아관리를 한다.

나. 임신부·영유아 건강진단 및 영양제 공급

신고 및 등록관리하고 있는 임부·영유아중 저소득층은 무료로 건강진단과 영양제를 보급하며, 1차건강진단 결과 정밀진단이 필요한 경우 2차건강진단까지도 한다.

다. 영유아 기본예방접종

전염병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인공면역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건소와 모자보건센터에서는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라. 모자보건센터 및 종합센터 운영 적정수준의 보건의료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산전분만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세계은행차관(IBRD)을 들여와 '81년부터 '84년까지 의료취약지인 농·어촌지역에 84개소를 건립하여 모자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고수준의 의료시혜와 모자보건센터의 의료지원을 위해 대학병원이나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11개소를 모자보건종합센터로 지정하여 모자보건사업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구 분	접 종 대 상		접 종 방 법
	기 초 접 종	추 가 접 종	
디피티(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생후 2월부터 6~10주 간격으로 3회	기초접종을 받은자로 12월이 경과된 자	0.5ml씩 근육주사
디 티(디프테리아, 파상풍)	6세에 달한 자		0.5ml 씩 근육주사
폴리오(소아마비)	생후 2월부터 6~10주 간격으로 3회	기초접종을 받은자로 6세에 달한 자	매회 1도스씩 경구투여
염열열(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생후 15개월		1도스 피하주사

마.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실시
선천성대사이상이란 태어날 때부터 체내에 필요한 효소가 없어 중추신경계에 장애를 일으켜 정신박약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70여종의 질환이 있다. 이와같은 정신박약을 초래하는 질환은 신생아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으나 대부분 생후 6개월이 지나면서 서서히 증상이 나타나며, 신생아기(생후 7일 이내)에 검사를 하지 않으면 치료의 시기를 놓쳐 정신박약증상을 초래하지만 조기발견하여 치료하면 완전히 정상인으로 자랄 수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91년부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제도를 도입하여 우선 저소득층 신생아 30,000명을 무료로 검사하여 이상이 있는 자에게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선천성대사 이상검사의 필요성을 홍보하여 자율적으로(검사비 2만원 이내) 검사를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바. 모자보건수첩 발급
임신, 분만, 영유아로 이어지는 일련의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모자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모든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상상태를 사전에 방지하고 조기발견함으로써 예방대책을 신속히 강구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임신부·영유아에게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하여 모든 병역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신속히 강구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임신·영유아에게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하여 모든 병역사항을 기재

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의문이나 수혜희망자는 보건사회부 가족보건과((02)503-7545, 7546)나 각시·도보건과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채용에 있어서의 남녀불평등 철폐를 위한 토론회」 실시

본회는 지난 10월26일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모집·채용에 있어서의 남녀불평등 철폐를 위한 토론회」를 실시하였다.

오늘날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늘어나고 있고 법적으로 남녀평등이 보장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많은 여성들이 취업에 있어 여러가지 성차별을 받고 있다. 여성의 사회참여 첫 관문인 모집·채용에 있어서의 남녀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본 토론회는 김영정 전 정부제2장관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대생 취업현실과 취업난의 극복방도

- 이정희(서울시 여대생 협의회장)
- ▲여성채용문화와 고용정책 방안
- 김동주(대졸인력 취업문제연구협의회장)
- ▲여성의 직업선택에 있어서 장애와 극복
- 김근화(본회 근로여성위원회 위원)
- ▲모집·채용상 남녀차별 개선방향
- 윤성자(서울지방노동청 고용문제조정위원회 조사담당)

쓰레기 수거 캠페인

본회 모니터, 회원단체 회원들은 11월5일 도봉산 계곡일대에서 쓰레기 수거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도봉산 입구에서부터 산중턱까지 널려있는 빈병, 음식찌꺼기, 폐휴지 등을 수거하였는데, 산에

집, 채용에 있어서의 남녀불평등 철폐를 위한 토론회

일시: 10. 26 (토) 14:00 주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서의 취사금지 조치와 계속된 환경보호 캠페인의 영향으로 산이 상당히 깨끗하였다.

매스컴 모니터 재교육 실시

본회는 지난 10월11일 본회 회의실에서 매스컴 모니터 재교육을 실시하였다. 강의 내용은 김기태 선생(서강대 신방과 강사)의 모니터링 세부 방법론이었다.

통일여성안보회, 26번째 회원단체로 가입

통일여성안보회(회장 정경옥)가 26번째로 본회 회원단체로 가입하였다. 통일여성안보회는 1980년 4월에 창



립된 단체로서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여성들의 사명을 고양시키고 이를 대내외에 홍보, 계도, 실천하고 우방국 및 비공산국과의 민간문화 교류를 전개하여 통일외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통일여성안보회는 11월 9일 본회 조직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1월10일 이사회에서 가입이 확정되었다.

지방여성단체소식 전라남도지역

전라남도여성단체협의회

전남여성단체협의회는 도내에서 여성봉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단체로서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여성들이 단합된 힘을 모아 건전한 사회참여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뜻을 같이한 12개 단체가 1967년 3월에 창립되어 매월 10일에 모임을 갖고 있다.

초대 회장으로 양명순씨(전 광주여자기독청년회장)가 취임, 1986년 광주직할시 승격으로 인해 본 협의회가 광주, 전남으로 분리하게 된 후 1988년 9대 송지원(전남새마을부녀회장) 회장에 이르고 있다. 현재 8개 단체가 가입하여 지역적인 어려운 여건에서도 각 단체별로 회장을 중심으로하여 회원의 능력배양과 조직육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전남여성단체협의회와 협력을 위하여 공동과제를 가지고 함께 일을 펴나가기 위해 서로 협동하고 단결하여 민주화와 지방화시대를 맞는 수준높은 여성의 의식계발에서부터 2천년대를 대처하는 각종 사업전개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 특히 중점 사업으로는
- 여성지도자 연수(연 2회)
 - 건전소비생활 및 소비자보호운동(연 4회)
 - 지방자치와 여성의 정치참여
 - 가족법개정운동
 - 이웃돕기성금품 지원 및 봉사활동
 - 청소년선도 자녀교육
 - 사치 과소비추방 및 건전한 사회기풍조성 등 지역 및 여성복지에 관한 사업에 힘을 합쳐하고 있다.



회장 송지원

금년에는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도학숙 건립기금모금사업(재경 호남유학생 중 생활이 곤란한 학생들이 기숙하는 집)에는 본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여성단체에서 구판사업, 회원회비, 개인회사금, 바자회, 일일차집운영 등으로 성금액 45만 8천원을 기탁하였다.

그리고 7월 23일 나주시청 회의실에서 우리 도의 27개 시군협의회장과 전남여성지도자 250명이 참가한 가운데 건전한 소비생활실천결의대회 및 교육을, 10월 23일에는 화순군민회관에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확산 시키기 위하여 본 협의회가 앞장서서 범죄와 폭력추방, 불안이 없는 사회, 분수를

지키는 사회, 열심히 일하는 사회 구현을 위해 최인기 도지사의 특강과 캠페인, 전담배포, 결의대회 사례발표 등 실질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애환자조운동을 바탕으로 하여 실시하였다.

지난 9월 17일에는 중부지방수해위문을 8개 단체가 완도군의 명산물인 멸치와 미역(3백만원)을 가지고 8개 단체장과 도 연합회장과 함께 고양군 현지를 방문, 위문품 4천개를 전달했다. 이때 우리 단체장들은 지난해 우리도 수해때 전국여성단체에서 지원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뜻도 있기에 더욱 자진해서 위문에 앞장서기도 했다.

그리고 10월 26~27일, 전남과 경남도민의 정신적, 문화적 결연으로 실질적인 친교인 '남도 한마음축제'에 전남여성단체협의회회장들과 27개 시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단 50명이 참석하여 여성단체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고 양도 여성단체의 화합과 우정을 갖고 임했으며 1박 2일 동안 우리 전남여성단체의 결속을 더욱 두텁게 다질 기회가 되었다.



목포 여협, 개정 가족법 세미나 개최

목포시 여성단체협의회는 한국여성개발원과 공동으로 9월 7일 오전 10시 목포시청회의실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및 개정가족법 홍보세미나를 가졌다.

목포시 여성단체회원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수애 교수(목포대 국민윤리학과)의 「여성단체참여해결을 위한 여성의 역할」강연에 이어 김숙자 교수(명지대법학과)의 「가족법개정안」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주부교실 지도자 연수회 실시

주부교실 지도자 연수회가 전국주부교실 전남도지부(지부장 박순옥) 주최로 10월 13, 14일 양일간 담양 수북면 학원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연수회는 평생교육차원에서 주부지도자를 양성하여 지역여성의 능력을 개발시키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도지부 지도위원 및 시군지회임원들이 참석하여 진행되는 이날에는 「중년여성의 심리」(이무석 전남대의대 정신과장)를 비롯하여 「실무자 교육」(이윤자 주부교실 중앙회장), 「합리적인 가족관계」(이정숙 호남대 가정관리학과교수), 「산업사회와 여성의 역할」(김희현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 「합리적인 소비생활 - 과소비증조배려, 에너지 절약」(김정녀 전남도 가정복지국장)

회분위기조성 실천 결의



「동양식 꽃바구니 만드는 법과 간단한 꽃꽂이이론」(양정자 하수꽃꽂이정원회장) 등 6개부문의 다양한 강의가 마련되었다.

「새생활 실천 결의대회」 및 여성지도자 연수 실시

전남여성단체협의회는 건전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새질서·새생활 실천 결의대회」 및 여성지도자연수를 10월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화순군민회관에서 실시했다.

전남여협 임원과 회원 및 화순군 여성단체회원 1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사치와 과소비, 범죄와 폭력, 불법과 무질서 등 사회병리현상을 추방하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며 우리 농산물 먹기 실천운동에 앞장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가두캠페인을 벌였다.

우리들의 광장

- 한국부녀복지연합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전물군경미망인회
- 대한영양사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부
- 가톨릭여성연합회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대한조산협회
- 국제승공연합전국여성회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원고도착순)

한국부녀복지연합회

수재민·불우 청소년 돕기

한국부녀복지연합회에서는 불사에 수재를 당한 수재민을 위하여 지난 9월29일 중앙일보사에 전국의 시설장명으로 수재의연금을 기탁하였다. 또한 10월13일에는 중추절을 맞아 신문판매 청소년들에게 선물증정과 함께 위로의 시간을 가졌다.

미담집 원고 모집

한국부녀복지연합회에서는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머니와 청소년들의 자기발전 및 생활의 설계를 위한 글을 모집하여 매년 미담집을 발간하고 있는데 금년에 제5집 발간을 위해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모니터 강사 교육 개최

대한간호협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전 회원의 모니터화를 목적으로 '87년부터 모니터강사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는데 금년에 세번째 모니터강사교육을 실시하였다.

전국의 시도별 모니터강사요원을 추천받아 실시하게 되는 금년 강사교육

에서는 이정준 교수(중앙대 신문방송학과)의 "모니터링 활용방안과 홍보 전략"에 대한 주제강연이 있었고, 모니터활동 및 홍보사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대한가족계획협회의 신동진 홍보과장으로 부터 사례발표가 있었다.

이어 종합토의에서는 간호사업발전을 위한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정예화된 모니터요원 양성」은 물론 보다 적극적이고 사회참여적인 홍보사업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교육에 참석한 52명의 지부별 모니터강사요원에게는 대한간호협회 운



대한간호협회-모니터 강사교육

우리들의 광장

대한영양사회

'90년도 국민영양 조사원 교육 실시

대한영양사회에서는 오는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 동안, 보사부가 제주도 및 모든 섬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표본 추출한 1백개 지구의 2천가구를 대상으로 '90년도 국민영양조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지난 10월 23일, 26일, 29일, 31일 전국을 4지역으로 나누어 식품섭취 및 식생활조사를 담당할 영양조사원(200명)의 차출과 교육을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매년 국민의 건강상태와 영양섭취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국민의 영양개선 및 건강증진의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식품섭취조사와 식생활조사 및 건강조사의 3가지로 구분하여 행해지고 있다.

우리 농산물애용 범국민운동 촉진을 위한 팔도풍물 김장축제

대한영양사회에서는 전국농어민후계자협의회사업단과 공동주관으로 「우리 농산물 애용 범국민운동 촉진을 위한 팔도풍물 김장축제」를 개최한다.

오는 11월26일에서 12월5일까지 10일간 상계동 아파트 단지내 체육공원과 목동아파트단지 파리공원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우리 농산물 애용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촉진하고, 김장시장 개선을 통한 도시와 농촌간의 적거리 체제 및 농축수산물 유통

의 새로운 패턴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전국농어민후계자협의회에서 주최하고 농협 및 수협, 축협, 한국방송공사에서 후원한다.

본 행사의 주요내용으로는 전국의 농어민 후계자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갖고 올라와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김장직판시장과 지역특산물 직판시장의 개선을 포함하여 우수농산물 전시, 팔도김치전시, 풍물코너, 즉석김치제조 및 판매 등의 전시코너가 마련되고, 개장과 더불어 우리 농산물애용 범국민운동 캠페인단 발대식을 갖고 홍보자료 배부 및 가두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며, 이밖에도 농악·국악·사물놀이·마당놀이 공연, 김치에 관한 강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도 곁들여질 예정이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제5회 훌륭한 아버지 시상식

매년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화목과 사랑에 바탕을 두고 건전한 가정을 이끌고 지역 및 사회발전에 공헌한 바 있는 숨은 아버지를 발굴하여 사회적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훌륭한 아버지상(像)"을 선정, 시상해 오고있는 대한주부클럽연합회에서는 지난 10월 25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제5회 훌륭한 아버지상 시상식을 가졌다.

올해의 훌륭한 아버지상으로는 충남 온양의 양준호씨가 선정되었으며 이날 시상식에는 역대 수상자들도 참석하여

영위원회에서 개발한 "간호와 모니터"라는 제목의 모니터지침서가 배부되었다.

지침서에는 모니터들이 데스크에서 모니터한 내용을 요약하거나 정리하여 본회 또는 데스크담당자에게 바람직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또는 격려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모니터링 방법, 그리고 모니터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모니터의 자세, 모니터링의 순서 등을 포함하였으며 그동안 대한간호협회에서 수집한 모니터 보고서 내용중 몇 종류의 사례도 소개되어 있다.

대한전물군경미망인회

사회질서확립을 위한 운동 전개

미망인회에서는 사회질서확립을 위해 각지부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추진소위원회를 구성, 실천하며 또한 각지부별로 새생활 새질서 실천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고 10월 15일부터 많은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공원, 유원지, 시내변화가에서 쓰레기수거 및 교통법규준수, 거리질서확립, 공동도덕 지키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 단도 배포하였다.

수해의연금 전달

수해를 당한 회원들을 위하여 미망인회에서는 수해의연금을 모금하기로 하고 모금액 7백만원을 수해로 피해를 입고 실의에 빠져있는 회원에게 전달하였다.

우리들의 광장



제1회 요리품평회 -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더욱 자리를 빛내주었다.

제1회 요리품평회 개최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요리지부에서는 지난 10월 10일 대방동 한빛예식장에서 제1회 요리품평회를 개최하였다.

김천주 회장 및 이사, 요리지부 임원 및 회원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그동안 일선 가정에서 파출요리를 담당하여 여러가지 요리솜씨를 익힐 수 있었던 회원들의 요리기술 개발과 숨은 인재발굴이라는 의도아래 실시하게 되었으며 128명이 참가, 총 144개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14개 작품이 수상하였다.

제21회 젓갈바자회 개최

대한주부클럽연합회에서 해마다 실시해오던 젓갈바자회가 올해로 21회째를 맞이하여 지난 10월 31일부터 신세

계백화점(본점, 영등포점, 미아점)과 세로나백화점 지하식품부에서 개장하게 되었다.

이번 행사는 선도 높고 질 좋은 젓갈을 담가 가을철 김장과 초겨울 가족의 입맛 돋구기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하였다.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부 창립 12주년 기념세미나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부

창립12주년 기념 세미나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부는 10월 16일 창립12주년 기념으로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체에서의 바람직한 여성참여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는 내년에 실시예정인 지방의회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에의 여성진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참여 전략을 제시한 것으로 김영정 전 정부제2장관이 주제강연을 하고 백영옥 이화여대교수와 이은재 지방행정연구실장이 각각 발제강연을 하였다.

이날 김영정 전장관은 주제강연을 통해 지방화시대에 여성들의 잠재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남성우월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의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발제강연에서 백영옥 교수는 남성후보에 비해 정치적 경력이나 경험, 조직력에서 훨씬 뒤지는 여성후보들이

선거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선거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이은재 연구실장은 여성이 공공분야에 진출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성, 여성단체, 정부의 삼위일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차원에서 남녀고용평등의 일환으로 상위직급은 여성에게 배려하는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가톨릭여성연합회

신뢰회복운동 전개

가톨릭여성연합회는 천주교평신도 단체인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가 신뢰회복 운동을 벌임에 따라 적극 호응하여 ▲교회안의 화해와 일치 ▲윤리질서 지키기(부모, 어른 공경하기, 미풍양속 지키기, 약속 지키기, 거짓말 안하기) ▲공동질서 지키기(공동도덕 지키기, 상거래 질서확립) ▲교통질서 지키기 ▲자연보호 ▲공해방지 ▲언어순화(조용히 말하고 고운말 쓰기) ▲전례분위기 조성(성당에 오면 알차게 앉기) 등의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직능단체간부반 연수회 개최

가톨릭여성연합회는 10월 29, 30일 양일간 통일연수원에서 직능단체간부반 연수회를 가졌다.

첫째날에는 「주변정세와 통일환경」, 「북한동향」에 대한 강의를 듣고, 이튿날에는 제3방굴을 시찰하였다.

우리들의 광장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계절수산물요리강습 및 전시·시식회 실시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에서는 지난 10월 22일 대전시 중앙관광호텔에서 대전지역내 일반인을 대상으로 「계절수산물요리강습 및 전시·시식회」를 개최하였다.

수산물식량화의 일환으로 수협중앙회와 수산청 후원으로 실시된 이번 행사에서는 계절수산물에 대한 영양강의 요리강습뿐 아니라 계절수산물을 이용한 요리 45종이 전시, 시식되기도 했다.

계절수산물인 오징어, 갈치, 고등어, 김, 미역, 톳 등에 대해 영양강의를 맡은 김복자 교수(대전실업전문대)는 특히 톳의 영양을 강조하였다.

톳은 칼슘, 요오드 등 무기염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혈관강화를 막아주고 상용으로 먹으면 치아가 건강해지고 태아의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등 예로부터 주목을 받아온 기호식품이라고 설명했다.



계절수산물 요리강습 및 전시·시식회 -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명하였다.

영양강의 후에는 황준권 회장의 계절수산물에 이용한 요리강습이 이어졌다.

흔한 수산물을 이용하여 독특한 맛을 냄으로써 식탁을 풍요롭게 꾸밀 수 있는 고등어가지탕수, 갈치강정, 톳커트렛, 오징어만두, 김생선튀김, 미역떡구이 등 다양한 수산물요리가 소개되었다.

대한조산협회

제22회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참가

대한조산협회에서는 10월 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일본 고베에서 개최한 제22회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I. C. M.)에 52명의 회원이 참가하였다.

이 대회는 42개국에서 약 6천여명의 조산사들이 참가하였는데 「조산사의 선물-사랑, 기술, 지식」이라는 주제로 각종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우리들의 광장

특히 이 대회에서 한국의 조산사들은 한복차림에 태극부채를 들고 입장하여 열렬한 환영을 받았으며, 이번 대회를 기회로 학술적인 견문을 넓힘과 동시에 협회발전을 위해 모두가 단결할 것을 다짐하였다.

국제승공연합전국여성회

국제승공연합전국여성회가 주최하고 전국부인연합회가 후원한 「제1회 내나라 평화통일을 위한 여성 결의대회」가 지난 10월18일 통일촌 자유회관에서 개최됐다. 동 대회는 40여년간 분단의 숙원인 남북통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이 출선수범하는 생활을 통해 가정에서나 지역사회에서 통일의 의지를 고취시키고 가치관정립을 통해 밝고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여 장차 도래될 남북통일시대를 대비, 지도자적 역량을 발휘할 것을 결의하는 대회였다. 이번 행사에는 귀빈 및 회원 445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루었다. 조민자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남북분단은 우리 민족 전

체가 겪고 있는 불행이며 통일이야말로 우리 최대의 임무이며 가장 절박한 과업」이라고 전제하고 「분단을 더 이상 강대국간의 이데올로기적인 논쟁의 산물로 돌려버리지 말아야하며 여성들이 보다 밝고 맑은 순수성을 바탕으로 건전하고도 진지하게 일으키는 실천운동만이 이 사회를 살리고 나아가 「국의 일로를 향하는 애국여성의 길」임을 강조했다.

이어서 격려사, 축사, 특별강연(최용석 본연합 전회장)이 있었고 일본의 여성 활동보고를 이케다후미코(북송인처 자유왕래실현 본부장) 여사가 하였고, 마포 양인화 회장의 결의문 채택과 이보희부장의 건의문 채택에 이어 북한여성에게 보내는 서한문을 이북5도 조옥현 여성회장이 낭독하고 다같이 통일의 노래와 만세삼창으로 끝냈다.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서울지회, 총회개최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서울지회는



조산협회 제22차 국제조산인명 학술대회 입상작

지난 10월 15일 2년마다 있는 총회에서 김기화 회장과 모든 임원의 유임을 결의하였다.

김정주 사무총장, 선의 성서적 의미에 대해 특강

지난 10월 18일 김정주 사무총장은 장위 중앙장로교회에서 갖은 서울 북노회 여전도 선교대회에서 선의 성서적 의미에 대해 특강을 하였다.

그리고 특강 후 절제 팸플렛 2천부를 각교회마다 배부하였다.

수재민에게 의류 전달

지난 10월 29일 연합회 이사회 및 특별회원 모임에서 수재민을 위한 의류전달이 있었다.

성경강해 모임

절제회에서는 매월 마지막 월요일에 성경강해 모임을 갖는다.

강사는 절제회의 김정주 사무총장.



국제승공연합전국여성회 제1회 내나라 평화통일을 위한 여성 결의대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부	회부	장	김	경	오	강남구 방배동 삼익아파트 2-307	584-1426
부부	회부	장	김	옥	환	인천시 북구 산곡동 307-71	032-93-3493
서기	이	장	오	정	순	강동구 명일동 현대아파트 101동 405호	488-1881
서기	이	장	김	경	희	구로구 신도림동 미성아파트 5-106	671-0326
회계	이	사	박	옥	기	중구 소공동 1 롯데호텔 3층 반도미용실	352-9093
회계	이	사	강	인	자	과천시 중앙동 주공아파트 10단지 1012-401호	503-4691
감	이	사	정	숙	자	동작구 대방동 58-490	815-2244
감	이	사	조	동	민	양천구 신정1동 북동아파트 1023동 904호	643-7966
조	이	사	정	영	숙	강남구 청담동 삼익아파트 14-1001	542-1430
직	이	사	강	기	원	종로구 신교동 2-30	736-8229
관	이	장	정	연	심	영등포구 여의도동 미성아파트 8동 909호	783-2924
리	원	장	정	숙	자	동작구 대방동 58-490	815-2244
위	원	장	김	천	주	서초구 서초동 1494-16 롯데빌리지 나들 102호	586-3541
원	원	장	박	용	연	종로구 혜화동 15-8	762-1090
연구	원	장	김	인	숙	성북구 보문동 2가 56-12	928-4534
위	원	장	김	금	래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아파트 507동 1109호	471-7865
관	계	장	김				
계	계	장	김				
무	총	장	김				

회원단체

(회원단체가입순)

회	원	단	체	명	회	장	주	소	전	화														
대	한	간	호	협	회	박	정	호	중구 방림동 88-7	279-3618														
대	한	기	독	교	여	자	절	제	회	연	합	회	여	귀	옥	용	산	구	동	자	동	35-26	754-1707	
대	한	여	학	사	협	회	박	용	연	도	봉	구	봉	문	동	423-44	993-2378							
대	한	조	산	협	회	김	복	순	중	구	정	충	동	1가	35-5	279-1972								
여	성	문	제	연	구	회	박	정	자	중	구	북	정	동	18	대학문화원	304호	273-7645						
중	앙	부	인	회	이	김	천	숙	옥	상	북	구	보	문	동	2가	7	928-2107						
대	한	주	부	를	연	합	회	김	천	주	중	구	남	창	동	1-2	새로나백화점	6층	752-4227					
가	를	여	성	연	합	회	오	덕	주	중	구	영	동	2가	1번지	가톨릭회관	5층	778-7543						
전	문	직	업	여	성	를	연	합	회	백	정	란	용	산	구	청	파	동	2가	53번지	화빌딩	303호	718-0915	
법	태	평	양	동	남	아	시	아	여	성	협	회	문	주	김	남	구	삼	성	동	113-1	코스모스텔	305호	557-8773
한	국	부	녀	복	지	연	합	회	안	정	숙	단	미	포	구	공	덕	동	427				712-0713	
한	국	여	성	학	공	협	회	정	숙	자	중	구	봉	래	동	1가	132-5						755-5341	
대	한	미	용	사	회	중	앙	회	오	정	순	강	남	구	방	배	동	925-5					585-3351	
한	국	자	수	협	회	김	태	숙	숙	서	초	구	구	민	보	본	동	67-103					534-1956	
한	국	우	먼	스	를	연	합	회	김	인	숙	성	북	구	보	문	동	2가	56-12					924-5923
한	국	여	성	문	화	생	활	회	은	방	회	강	남	구	반	포	동	425-1	반포쇼펄타운	7동	520호		533-1906	
국	제	존	타	서	울	를	연	합	회	배	영	성	북	구	성	북	동	330-500					764-4445	
한	국	여	성	크	리	스	찬	를	연	합	회	최	종	로	구	평	창	동	537-9					352-1872
대	한	전	문	군	경	미	망	인	회	양	임	영	등	포	구	여	의	도	동	12-5				782-2862
대	한	약	사	회	여	학	사	회	정	연	심	강	남	구	서	초	동	1161-2	약사회관				581-1201	
우	리	웃	협	회	이	왕	은	연	임	은	관	종	로	구	사	간	동	74번지					734-9477	
한	국	식	생	활	개	발	연	구	회	왕	관	종	로	구	청	진	동	286					733-4983	
국	제	여	성	출	연	명	한	국	본	회	김	민	제	강	남	구	신	사	동	585-11	삼미빌딩	501호		549-5161
대	한	영	양	사	회	조	정	순	영	등	포	구	신	길	7동	1351-3	천복빌딩	704호					842-4334	
국	제	승	공	연	합	전	국	여	성	회	조	민	자	중	구	중	림	동	355	대우빌딩	610호			392-5601
통	일	여	성	안	보	회	정	경	옥	관	원	구	북	문	동	183-1								357-3977

편집후기

이번 호에는 지난 10월26일 개최된 모집·채용에 있어서의 남녀불평등 철폐를 위한 토론회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입사철을 맞아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이 여대생의 취업현실에 반영되어 여성고용의 확대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월간여성 • 1990년 11월호 통권 280호
(매월 10일 발행)

● 발행 :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발행인 : 김경오

편집인 : 김금래

인쇄처 : 코리아 해럴드

사진식자 : 한라기획

발행일자 : 1990년 11월 10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427, 428

☎ 793-5196, 794-4560,

796-4560, 797-5778

Fax : 796-4995

● 편집 : 출판공보위원회

위원장 : 김천주

위원 : 김효자 / 박금옥 / 박영혜 / 박용옥 /

신동식 / 오종자 / 최창섭

담당 : 오혜란

「여성」구독안내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계 의견수렴을 통한 여성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를 비롯한 회원단체의 사업소개 및 국내외의 여성계 동향, 전반적인 사회문제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는 「여성」의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본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793-5196, 794-4560

고급양념 맛이 진하게 우러나요!

“고급양념 감치미, 쇠고기가 4 배 들어있어
국물맛이 한결 진해요!”

“고급양념이라 느끼하지 않아요.”

“쇠고기맛이 진해요!” “사용이 간편해요.”

“영기지도 눅눅해지지도 않던데요.”

한번이라도 써보신 주부님들은 다시
감치미를 즐겨 찾습니다.

감치미는 어떤 국물, 어떤 찌개음식에
사용해도 쇠고기국물맛을 제대로
내주기 때문이죠.

국, 찌개, 탕... 국물음식의 제맛은
이제 감치미로 즐기세요.



주식회사 미원